

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與 “권한쟁의 심판” 맞붙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3’에서 정기택(맨 왼쪽)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K바이오클러스터 육성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K-제약바이오포럼에서는 해외 바이오클러스터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현황과 K바이오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관련기사 4면 신현 기자 holjjak@

巨野, 환노위서 단독 의결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위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을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9명), 정의당(1명)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위해서는 환노위 재적 의원(16명)의 5분의 3 이상인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위원은 퇴장 직전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소수 의견이란 이유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 측은 노란봉투법이 환노위에서 충분히 심사된 뒤 법사위에 갔는데도, 법의 내용을 이유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직회부의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애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이날 전체

野 “수차례 토론·공청회도 진행 법안 논의 지연 두고 볼 수 없다”

與 “김남국 사태 등 국면 전환용 숫자로 밀어붙이는 강패” 비판

재계 “노사관계 파탄에 이를 것”

회의안건이 아니었다. 그런데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내 본회의 직회부 안건의 처리를 요구했고,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임 의원은 “간사간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거나”라며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봉투 사건’의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강패인가”라고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환노위에서는 (직회부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게 원칙에 맞다”며 “수차례 토론도 하고 공청회까지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교섭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전 해철 위원장은 “대법원 판례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입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끝없이 지연할 수 없다”며 직회부 부의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민 기자 oin@

5G 속도 25배 ‘뺨뺨기’... 이통3사 과징금 336억

공정위 “실증근거 없는 광고로 기만” 이통3사 “이론상 속도 충분히 설명”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이다. SK텔레콤에는 168억2900만 원, KT 139억3100만 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

을 통해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초당 기가비트)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 문구로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2.5GB(기가바이트)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어요” 등을 내걸었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실증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친다”며 “광고 기간 전체로 보면 평균 속도가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는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실험 조건 아래 계산되는 최대 지원속도(2.1~2.7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들은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사에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를 비교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 제재에 유감을 표했다.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는데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아쉽다고 밝혔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60주년, 그 이상의 MG

63년 경남 산청에서 출발한 위대한 걸음은 지역사회의 순수한 민족자본을 바탕으로 이루었기에 60년의 성장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빛날 앞으로의 100년, MG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팀 MG새마을금고가 후원합니다



MG새마을금고



1963년 새마을금고 태동



1983년 예금보호제도 도입



1997년 온라인 전산망 구축



2000년 MG인재개발원 개원



2018년 통합 IT 센터 건립



2021년 MG새마을금고역사관 개관



2023년 1월 MG새마을금고씨름단 창단



2023년 5월 세계 새마을금고의 날 선포

나을 기미 없는 '저출산 처방'... 출산율 '0.7명'도 위태

통계청, 3월 인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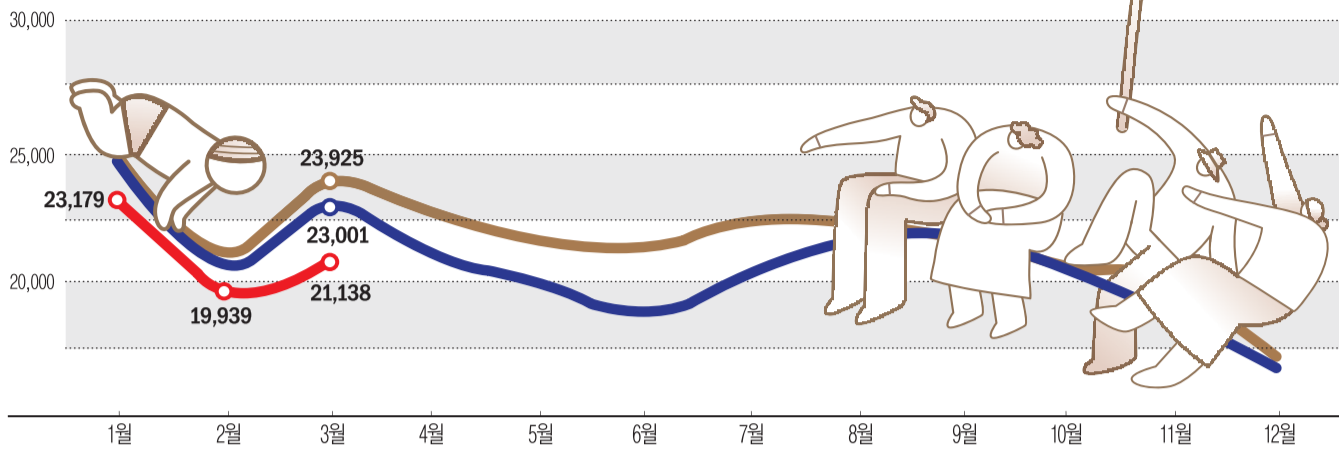
1분기 0.81명... 또 '역대 최저' 올해 합계출산율 0.73명 예상 국내 인구 41개월째 자연 감소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동 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대로 가면 올해 합계출산율 예상치인 0.73명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6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1분기 합계출산율 0.81명은 동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기조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전국 월별 출생수 (단위: 명) ○ 2021년 ● 2022년 ○ 2023년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다만 작년 4분기(0.70명)와 비교해 합계출산율이 0.11명 늘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여성의 출산율은 상반기에 높아지고, 하반기에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내려간 것도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 초반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3명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전남(1.09명, +0.02명)을 제외한 16개 시도 합계출산율이 감소했다. 이 중 서울이 0.62명을 기록해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25~29세는 3.6명, 30~34세는 6.7명 줄었다. 35~39세와 40세 이상은 각각 0.6명, 0.1명

늘었다. 여성의 출산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256명으로 전년 대비 4116명(6.0%) 줄었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3월만 놓고 보면 출생아 수는 2만 113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64명(8.1%) 줄면서 8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동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수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4.9명)도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3월 출생아 감소 폭은 작년 7월(-1874명, -8.4%)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시도별로는 충북 등 3개 시도는 출생아 수가 증가한 반면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는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성의 출산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저출산 기조가 심화하면서 출생아 수가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3월 사망자 수는 2만 8922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5689명(35.2%) 감소했다. 2월(2만 739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사망자 수가 2만 명대를 유지한 것이다.

고령층에 건강 위험 요인이 된 코로나 19가 올해 들어 주춤하면서 전반적으로 사망자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마이너스(-) 7784명을 기록하면서 41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를 지속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트위터로 경제예측"...연준, 트위터금융심리지수 개발

금융 관련 트윗 440만개 토대로 주가 전망·FOMC 충격도 예측 소비심리 등 지표와 연관성 ↑

전 세계 사람들이 15년간 올렸던 트윗이 이제 경제를 내다보는 지표로 활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구진이 트위터 데이터로 금융정책 변화와 투자 심리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수를 개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레이스 애덤스를 비롯한 연준 연구진은 성명을 통해 '트위터금융심리지수(TFSI)'라는 새로운 척도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금융시장과 관련한 트윗 440만 개를 토대로 지수를 개발했다. 트윗은 로봇 계정이 만든 인공지능을 제외하면 자연어로 작성된 것들로 수집됐다. 연구진은 지수를 만들기 위해 단어 사이 연관성을 결정하고 필터링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예를 들어 '본드(Bond)'라는 단어는 평상

시 '결합'이나 '연결'을 의미하지만, 여기에 '기업'이나 '쿠폰'과 같은 단어가 붙으면 채권, 고정이자 소득과 같은 다른 의미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진은 이 부분을 잡아내 지수에 반영했다.

연구진은 "지수는 회사채 스프레드(금리차)와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등 다른 심리지표와 상관관계가 높았다"며 "다음 날 주식시장 수익률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이에 따른 시장의 충격 정도를 예측하는 데도

트위터금융심리지수(TFSI) 주요 특징

- ※ 출처: 블룸버그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구진 개발
- 금융시장 관련 트윗 440만개 기반
- 회사채 스프레드,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등 다른 지표와 상관관계 높아
- 통화정책 기조 변화, 다음 날 주가 수익률 예측 등에 활용 기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진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첫날 이후 트위터 분위기는 다음 날 있을 FOMC 성명 발표와 관련해 통화

정책 충격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연준 위원들이 긴축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놔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만큼 TFSI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지수가 연준의 금리인하 폭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제공하지 않는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연구진은 트위터 데이터에서 도출한 일 자리 감소와 관련해 개발 지표도 만들었다. 이는 현재 노동부가 매주 발표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넘어서 특정 시기의 실업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하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금리 내려도 돈 빌릴 곳 막막”... 사금융 내몰리는 저신용자

치솟는 대출 문턱

5대은행 차주 신용점수 917.6점
 지난해 11월보다 18.2점 높아져
 카카오뱅크·케이뱅크도 900점대
 저축은행, 600점 이하 대출 불가
 연체율 오르며 저신용자 대출 막혀

은행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
 (단위 : 점) ※ KCB기준

	5대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1월	915.2	893.6
2월	918.8	902.6
3월	916.4	895.3
4월	917.6	903.3

※출처 : 은행연합회



용자들의 상환 여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우려도 커졌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1%로 집계됐다. 5%를 웃도는 연체율은 2016년 말(5.83%)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자 금리를 낮추는 대신 대출 공급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서 “연체율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제도권 대출 거절로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는 중저신용자들은 빠르게 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평점 하위 10% (NICE 기준)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중 불법 사금융으로 신규 유입된 규모는 3만 9000~7만1000명이다. 전년(3만7000~5만6000명)보다 하단 추정치는 2000명, 상단 추정치는 1만5000명 늘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시중은행의대출금리가연일하락하고 있지만,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들이 1·2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 여전히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17.6점(KCB)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899.4점)보다 18.2점 상승했다. 2월에 취급된 신용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는 918.8점으로, 관련 공시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도 대출 문턱은 높다.

지난달 케이뱅크가 취급한 신규 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는 909점, 카카오뱅크 908점, 토스뱅크는 893점으로 모두 900점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신용대출의 신규 취급액이 3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 33개사 중에서 12개사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다.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연 18%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은 40%를 넘어섰다. 지난달 기준 OK저축은행은 42.81%, 웰컴저축은행은 42.43%로 집계됐다. SBI저축은행도 38.99%로 40%에 가까웠다. 반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13.84%, 페퍼저축은행은 28.82%로 상대적으로 연 18% 이상의 고금리 비중이 작았다. 이는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금융사 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오자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코로나 19 만기연장이 종료되면 연체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면서 “대환대출 인프라 시행으로 대환대출이 얼마나 유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무작정 늘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1분기 연체율은 0.82%로, 전년 동기보다 0.34%포인트(p) 급등했다. 카카오뱅크 연체율도 같은 기간 0.26%에서 0.58%로 뛰었다. 3월 은행권 평균 연체율이 0.33%인 것과 비교하면 인터넷은행 연체율은 높은 편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올해 1분기 600억 원 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만 1조6000억 원대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역대급 ‘어닝 쇼크(실적 충격)’다. 업권 차원에서 적자가 난 건 9년 만이다. 고금리로 주요 차주(대출자)인 중저신

‘SG발 폭락 대응’ 적절했나 감사원, 금융위 고강도 조사

감사 후 비공식 추가 점검 예고
 일각선 “수사 공백 길어” 지적
 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근절”

감사원이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24일부터 이날까지 금융위 정기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 산업금융3과에서 맡고 있으며, 감사 목적은 조직·예산 및 주요 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해 행정상 개선 유도로 공지했다.

통상적으로 감사원은 공식 감사를 끝내고 1~2주일가량 추가 자료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융위 감사 역시 비공식적으로 추가 자료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금융위 감사를 시작한 시점은 이미 금융위 내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서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시점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언론을 통해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았고, 같은 달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작전 세력으로 보이는 일당 10여 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초 인지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시점까지 공백이 길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기술한 주가 조작 사태 경과는 △4월 24일 8개 종목 하한가 기록, 언론사 주가조작 정황 탐사 보도 및 남부지검 주요 혐의자(11명) 출국금지 조치 △금융위 혐의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4월 28일 검찰·금융위·금융원 합동수사팀 구성 등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자조단(자본시장조사단) 자체적으로 경중 판단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며 “예를 들어 이차전지 등 현재 시장의 최대 관심사에 대해 조사하는 와중에 주가 조작 제보를 받았다면 조사 착수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적이지 않지만 조사 상황에 대해 금융위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전일 한자리에 모여 ‘시장교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불공정거래 척결 계획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직(職)’까지 걸쳐 시장교란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감사원은 금융위 정기감사에 대한 추가 연장과 관련해 “감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서지연 기자 sjy@

전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요령

세가지만 실천해도 하루 1kWh 줄이기 성공!

하나! 에어컨 설정온도 1°C 높이고,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C 유지하기

0.41kWh

둘!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0.36kWh

셋!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0.32kWh

하루 1kWh, 한달 30kWh 절감 → 한달 전력사용량 10%, 전기요금 13% 절감

전력 사용량

299 kWh → 269 kWh (30kWh 절감)

전기요금

58,010 원 → 50,220 원 (7,790원 절감)

일곱가지 더 실천하면 나도 에너지 절약 달인!

전자레인지 자연해동 후 사용

0.19kWh/일

비데 온열기능 끄기

0.1kWh/일

세탁기 세탁물은 모아서

0.09kWh/일

전기밥솥 보온시간 ↓

0.06kWh/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하루 1.08kWh 한달 32.4kWh

시원한 차림으로 콜맵시 실천하기

하루 0.81kWh 한달 24.3kWh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하기

하루 0.54kWh 한달 16.2kWh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 KEN | 한국남동발전 | KOMIPO | 한국서부발전 |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 KEA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회 | 에너지시니어네트워크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한국소비자연맹 | 한국에너지단체협의회

“바이오, 제2반도체 되려면 글로벌 수준 ‘클러스터’ 필요”

‘차세대 먹거리 산업’ 도약 위해
“벤처 인큐베이터 확보” 목소리
정부 “지역클러스터 연계·조정”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내빈들과 김덕현 이투데이 대표이사(가운데)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3'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한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 엄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본부장, 정기택 경희대 경희대교수, 김 대표, 정 국장,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정명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 전략기획본부장, 홍유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생태계 조성팀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K바이오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가속하려면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탄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24일 서울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K-제약바이오포럼 2023'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강국 도약, K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의견을 공유하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축사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은 개발 기간의 장기화 및 엄격한 규제, 실패 가능성 등으로 결실을 보기 어려운 분야"라며 "이를 극복하려면 상호 기술 협력과 지식 정보물

공유해 혁신적 가이드라인을 만들 바이오 클러스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형 보스톤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전국에 산재한 지역 바이오클러스터를 연계·조정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국내 바이오클러스터 현황과 발전 과제 △해외 성공 사례로 본 바이오 클러스터 발전 방안을 발표·공유하

고 K바이오클러스터의 대표 사례로 대구 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첨복단지)가 소개됐다. 이어 열린 정기택 경희대 교 경희대교수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서 K바이오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바이오 클러스터가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바이오 벤처를 보유한 인큐베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에 산재한 바이오클러스터 간 특화전략과 효

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본부장은 미국의 보스톤, 스위스 바젤,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짚었다. 이 본부장은 산·학·연·병 간 네트워킹과 융합을 바탕으로 자생적 클러스터가 조성된 점을 확인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정명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은 합성신약 및 점단의료기기의 사업화 전 주기를 윈스톱(ONE-STOP) 지원하는 대구첨복단지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곳은 공동연구 747건, 기술이전 30건 등 실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4862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연구자 신규 창업 사례 6개사를 발굴했고, 공공일자리 854개를 창출해 생태계 활성화와 함께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주제·사례 발표

“클러스터마다 특화 전략 세워야”... “투자 늘리면 바이오 6대 강국 가능”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연·병을 모아주는 바이오클러스터의 적극적 육성이 필요하다. 해외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 사례를 보고 배워야 국내 바이오클러스터도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24일 열린 'K-제약바이오포럼 2023'의 첫 발표자로 나선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국내 바이오클러스터가 발전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기술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 위기관리 측면이 중요한 만큼 연구단계의 기업 간 다양한 협력, 지식교환 및 혁신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바이오클러스터 간 특화 전략이 필요하고, 연계할 방안을 찾아 봐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다각화에 따른 정책 제도 개선을 통해 통일된 기획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바이오클러스터 산업

정운택 “정부 주도로 시작해 민간 합동 모델로 발전해야”

이현우 “해외 사례서 배워야 美 대학·연구소, 하나의 생태계”

정명훈 “산업 선도기업 육성 단지 내 협력채널 확대 노력”

육성발전 특별법' 제정 등으로 범부처가 함께 움직여야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 주도형으로 시작해 민간이 협력하는 민간합동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있는 주요 거점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특구를 지정해 정부의 역할과 민간이 합동하는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바이오클러스터 성공 사례를 소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



이현우 제약바이오협회 본부장



정명훈 케이메디허브 본부장

개한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본부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클러스터 형태로 존재해야 효과적이다. 해외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 사례를 보고 배워야 국내 바이오클러스터도 발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본부장은 "보스톤은 명문대학과 최고 수준의 연구소, 우수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병원과 연구소 등이 많이 있다. 각 기관들이 거미줄처럼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바젤투자청의 '바젤론치 프로그램'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가입했다. 회원사 5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의 유럽시장 진출 거점 구축 및 신약 개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총리실 산하 '디지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신속한 가동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한다면 향후 5년 안에 제약·바이오 글로벌 6대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목

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내 바이오클러스터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은 한국형 보스톤 바이오클러스터를 목표로 발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명훈 케이메디허브 전략기획본부장은 "의료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통한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창업활성화를 통해 한국형 보스톤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메디허브는 2010년 세계적인 의료 연구개발 중심지 육성 및 국가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국내 중소·벤처기업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특화 분야는 합성신약 및 IT 의료기이다. 정 본부장은 "첨단의료산업을 선도할 기업을 육성하고 우수 스타트업들을 지원해 단지 내 협력채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케이메디허브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K바이오클러스터를 활용하면 한국은 적기에 글로벌 6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K바이오는 이미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바이오산업의 쾌속 성장을 이끌 바이오클러스터의 경쟁력 확립은 현시점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24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K-제약바이오포럼 2023' 패널 토론에서 "앞으로 바이오클러스터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이 얼마나 경쟁력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K바이오의 글로벌 위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5년 내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의약품

“전국에 20개 산업단지... 중복·비효율 발생”

“싱가포르가 우리의 8배 지원... 투자 늘려야”

패널 토론

수출을 2027년까지 16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첨단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법·제도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보다 혁신적인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바이오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우려가 나온다.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정기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전국에 20여 개

클러스터가 있는데 세계적인 수준은 아직 없다"라면서 "중복과 비효율이 생기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명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은 "싱가포르는 2000년부터 바이오폴리스 조성을 위해 연간 1조 원을 투자했고, 화이지는 매년 R&D에 10 조원을 투자한다"라면서 "우리는 2010년부터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해 2038년까지 4조 6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싱가포르가 우리의 8배, 화이자가 싱가포르의

10배를 지원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본부장은 "정부가 바이오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할 동력이 있다고 믿고 지원을 확대하는 점은 감사하지만, 더욱 확대해도 좋다고 판단한다"라면서 "보스톤과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려면 어떻게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범부처 바이오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산업의 중장기 전략과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마련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한 정책과 제정, 규제를 총괄 조율할 중심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지면 몇 년 후에도 제막만 바뀌고 똑같은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자생적으로 융합해 바이오클러스터를 완성한 해외 사례를 배우고 부처와 업계, 협회가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유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생태계 조성팀장은 "다양한 법안이 있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대구첨복단지와 같은 완성형 바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흘러진 바이오클러스터를 연계할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한국, 美에 “중서 반도체 증산 10%까지 허용해달라”

가드레일 규정 기준완화 요청
첨단반도체 증산 기준 2배 확대
실질적 확장·범용반도체 재검토
구체적 기술환수 활동범위 요청
美반도체협 확장기준 상향 권고
상무부, 의견수렴해 연내 확정안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한국 측 수정 요청안 ※출처: 미국 상무부

현행 수정 요구사항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우려국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 반환
 (첨단반도체는 생산능력 5% 이상 확장 불가, 범용반도체는 10% 이상 불가)

한국 정부
 '실질적 확장' 기준을 '첨단반도체 10%'로 상향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 특허사용계약 '기술 환수' 조항의 '공동연구' 제외
 - '외국 우려단체' 정의 모호해 '수출통제명단에 포함된 기업' 등으로 좁혀야
 - 보조금 지급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연구 허용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과 관련해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상무부가 3월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가 게재됐다. 한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특히

'실질적 확장' 기준을 첨단반도체의 경우 5% 이상,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첨단 반도체 기준도 10%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범용반도체 기준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로직반도체 28나노미터(nm·1nm는 10억 분의 1m) △D램 18nm △낸드플래시 128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나 기술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술 환수(Te-

chnology Clawback)' 조항이 제한하는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선 안 된다"며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 확장'과 '범용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도 한국 정부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실질적 확장 기준을 10%로 올리거나 기

존 장비의 업그레이드나 교체는 규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을 권고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역시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는 특허사용계약을 '기술 환수' 조항의 '공동 연구'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KSIA는 의견서에서 "우려국과 특허사용계약을 막으면 반도체 생태계에 필요한 일상적 거래에 지장을 주고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우려단체'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수출통제명단에 포함된 기업 등으로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타격을 받게 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상무부가 관보에 게재한 공개본에는 담기지 않았다. 상무부는 의견 접수를 마감하고 추후 검토를 통해 연내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 하원 미·중 전략경제특위 위원장은 한국 정부에 마이크론 자리를 대체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마이크론의 중국특위 위원장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 반도체 기업에 부여된 미국의 수출 허가증이 마이크론 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도 마찬가지(자국 기업이) 빈 자리를 채우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대영 기자 koda0@

대외채권·채무 현황 (단위: 달러)

항목	2022년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대외채권 (준비자산)	1조776억	1조446억	1조148억	1조217억	1조212억
대외채무 (단기외채)	6523억	6650억	6405억	6652억	6650억
순대외채권	4254억	3796억	3743억	3565억	3562억
단기외채/준비자산 비율	38.3%	42.3%	41.1%	39.3%	40.8%
단기외채/대외채무 비율	26.9%	27.9%	26.8%	25.0%	26.1%

※출처: 한국은행 '2023년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

단기외채 비율 다시 40% 돌파 韓銀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편”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과 외채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했다.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만기 1년 이하 단기외채 비율이 3분기 만에 40%를 넘겼다. 대외채무 가운데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 비중도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국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차익거래유인이 확대되자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중심으로 단기외채가 대거 유입된 영향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은 40.8%로 전분기 말 대비 1.4%포인트(p) 상승했다. 3분기 만에 상승 전환이다.

단기외채 비율은 작년 2분기 42.3%로 10년 만에 40%를 넘긴 후, 3분기 41.1%, 4분기 39.3%로 낮아졌는데 다시 40%를 웃돌았다. 우리나라 1분기 외환보유액이 4261억 달러로

전분기(4232억 달러)보다 29억 달러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외채가 72억 달러나 증가한 영향이다.

대외채무 가운데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 비중 역시 전분기 말 대비 1.1%p 상승한 26.1%를 기록했다.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순(純)대외금융자산은 7730억 달러로 직전분기보다 17억 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46% 규모다.

대외금융자산(내국인의 해외 투자)과 대외금융부채(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모두 늘었지만,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이 대외금융부채 증가폭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외국에 갚아야 할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이 늘었다.

대외금융자산은 거주자의 증권투자 및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전분기 말 대비 317억 달러 증가했다. 대외금융부채는 외국인의 증권투자를 중심으로 전분기 말 대비 300억 달러 증가한 1조4274억 달러였다.

유복근 한은 경제통계국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순대외채권국이며, 2014년부터는 순대외자산국"이라며 "동시에 외환보유액도 세계 9위 수준이라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NH농협은행

“나랑 이원 하자”



NEW NH농협은행 이체 수수료 평생 0원



사랑에는 조건이 붙을 수 없기에

이체 수수료 평생 0원의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의 조건 없는 고객 사랑은 계속됩니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



※ 최대 송금 한도 (1회 1억원, 1일 5억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일: 2023-1620(2023.02.24~2024.02.29)

NH농협은행

당정 “불법 전력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공공질서 확립 협의회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과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계획을 신고할 경우에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심의 도로 상에서 개최한 시위 또한 제한을 검토하고, 0시~오전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위해 야당과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측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가장 공공질서 확립과 국

신고 단계서부터 철저히 대응 심야집회 금지법안 野와 협의 민주노총 노숙집회 법적 조치

민 권익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서 이번 노숙집회나 여러 가지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집회·시위를 신고 단계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의 경우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도로상에서 개최한 집회·시위도 신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서 현장에서 법대로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언급하면서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직접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국회가 입법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나”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걸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상식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코인 게이트’에도 집토끼 돌아온 민주당 ‘김남국 제명’ 딜레마



‘김남국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다. 여야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민심의 기류는 다르다. ‘김남국 사태’로 갈림길에 선 여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24일 공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7%, 더불어민주당은 37.4%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지지율 2.8%p ↑ 2주째 상승
호남·女 등 지지층 결집 분석
국민 44% “의원직 제명 찬성”
與도 “결단 내려야” 연일 압박

하면서 ‘집토끼’(고정 지지층) 이탈 현상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마주할 가장 큰 변수는 김남국의 의원직 자진 사퇴 여부다. 24일 발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 44%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응답자도 15.9%로 나타나면서 국민 절반이 김 의원 징계를 원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한 차례 거리 두기를 했지만, ‘제명’ 여부를 두고 민주당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국민적 관심도는 높지만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의혹 수준인 김 의원을 제명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여세를 몰아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직 자진사퇴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표는 왜 김남국 의원직 제명에 나서지 않는가. 쟁기는 것이 있어서인가”라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여권 초선 의원은 “윤희숙 전 의원도 자진해서 사퇴했는데, (김 의원)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야당도 선 굵기에 들어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남국 의원은 못 돌아온다”며 “민주당에 논란을 만들어 놓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것을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채로 탈당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권 관계자는 “(김 의원) 자진 사퇴를 한들 이미 때를 놓쳐버린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누리호 발사 예정된 날, 국회선 ‘우주청’ 신경전

이종호 장관 “경남사천 설치” 발언에 野 “특별법에 입지예는 없어” 항의 與 “제대로 해보겠다는데 반대 말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시스

누리호 발사가 예정됐던 24일 국회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두고 여야간 거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우주청 설치 지역을 필미로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논의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장에서선 ‘우주청 입지’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고성어 오고 갔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을 보면 우주항공청을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경남) 사천에 설치하게 돼 있다”라고 답한 게 언쟁의 발단이 됐다. 이 장관의 대답이 있고 난 후 민주당은 “(그런 내용은) 법에 나와있지 않다. 어디에 나와 있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별개로 특별법에는 설치할 지역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간 언쟁이 격화되자 권 의원은 “특별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한다. 아무리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도 정부가 일을 하겠다는데 막으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금 우주전담 기구에 대한 정부 법안을 비롯해 저와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출한 법안까지 모두 세 개가 있다”며 “거기에는 우주전담기구의 입지와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없다. 입지는 대통령 공약인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그는 또 “그걸 가지고 ‘발목 잡기’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주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나. 반대를 할 것 같으면 법을 왜 내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성중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야당 측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의 본부를 설치하는 하나의 또 다른 개념을 자꾸 제시하니 우리도 답답하다”면서 재차 협조를 촉구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이 아닌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인데, 지난 4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與 “한일·한미관계 획기적 발전”... 野 “中과의 관계 파탄”

국민의힘이 24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고, 최근 미국·일본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진 정부의 외교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외교 기조를 “미국·일본에 올인하는 외교”라고 비판하며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상화:한미·한일·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한일, 한미 관계가 과거와 달리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가장 큰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단절돼있었다시피 했던 가파른 대지 관계의 한일관계가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한일·한미 관계의 정상화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구실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의 큰 나라를 이뤘으면 서도 여전히 국제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더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가치동맹으로 성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윤 정부의 외교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일본에 올인하는 외교’라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동안 한국 외교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왔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올인하는 외교를 펼치면서 사실은 안보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지역 특산 한우를 만날 수 있는 곳

지역 특산 한우 프라자 **전문 식당**

전국 100개 한우프라자에서 지역마다 다른 우리 한우의 육향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우프라자는 농·축협이 직접 운영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 전문 판매장, 구이 전문 식당, 소비자 체험 시설, 교육과 문화 시설이 어우러져
국산 축산물 판매와 소비자에게 한우를 공급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관련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조장 산업현장 극도의 혼란 초래할 것”

경제계, 노란봉투법 문제 지적
6단체 상정 중단 공동성명 발표
“개정안 사용자 모호하게 규정”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

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 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개념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은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경영권·독립

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하청 간 교섭이 허용되면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증가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 역시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 이정식, 거부권 건의 시사

본회의 직회부 의결 후 브리핑
尹, 3번째 거부권 행사하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하여 재고해줄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 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환노위 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어 노란봉투법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

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떤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둔다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이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회부가 곧 노란봉투법 시행을 의미하진 않는다. 다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이탈표를 통제하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란봉투법에 반대해 온 만큼, 본회의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현 정부 세 번째 거부권 사례가 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대구·제주서 자율주행차 배송 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사업비 2년간 76억 투입
달구벌·탐라 자율차 공모 선정

25일부터 대구와 제주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생활물류·집 배송 서비스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국도교통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자율주행 집 배송 서비스를 대구와 제주지역에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은 자율주행 기반의 창의적인 모빌리티 프로젝트 발굴을 촉진하고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새싹기업의 자율차 제작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한다. 2년간 76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달구벌 자율차(대구)’와 ‘탐라 자율차(제주)’ 2개 프로젝트는 같은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여객운송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으며 25일부터 집 배송까지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달구벌자율차(카니발)는 대구테크노



생활물류 및 집 배송 서비스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차.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폴리스 지역(10km 구간)에서 제공해온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에 더해 생활물류 배송서비스를 접목하고 국가산단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장(28km 구간, 7월)한다. 인근대학교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초단거리(약 2km 이내) 모빌리티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모델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고 로봇배송도 도입해 자율주행 물류배송의 전 과정을 실증하게 된다. 운송요금은 무료다. 달구벌 자율차는 오토노머스A2Z가 주관하며 카카오모빌리티, KT, 현대오트모, 한국자동차연구원, 뉴빌리티가 참여한다.

탐라자율차(솔라티)는 이미 운행 중인

제주공항 인근 해안도로(약 16km 구간)와 중문관광단지 일대(약 5km) 관광형 여객운송 서비스에 더해 제주공항부터 호텔까지 여행객의 짐가방(캐리어)을 자율차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일, 사전 예약 기반이고 운송요금은 무료이나 수화물 1개당 보관료 5000원을 받는다. 제주를 찾는 여행객은 공항에서 수화물을 맡기는 동시에 탐라 자율차로 해안도로를 관광하고 원하는 시간에 다시 호텔에서 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탐라 자율차는 아이티텔레콤이 주관하며 라이드플러스, 광명D&C, KAIST, 제주연구원이 참여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30일 ‘RICE SHOW’ ...쌀가공식품 한자리에

농식품 수출 효자 ‘쌀가공식품’
52개 업체, 제품·시장 동향 소개

농식품 수출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쌀가공식품의 대표 상품과 앞으로 시장 동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정부가 산업 확대를 추진하며 새로운 원료로 주목받는 쌀가루 관련 제품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23 쌀가공식품 산업대전(RICE SHOW)’을 개최한다. 쌀가공식품산업대전은 우수 쌀가공식품기업과 제품을 국내외 유통업체, 바이어에게 소개하고 시장·수출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했다.

올해 산업대전에서는 ‘쌀 가공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발굴·육성해 K푸드 시장의 혁신적인 확대를 이끌어간다’를 주제로 총 52개 쌀가공식품업체가 참가하고, 지난해 선정된 쌀가공식품 상위 10개 제품을 비롯한 최신 제품과 시장 동향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루쌀을 활용한

다양한 쌀가공품도 전시된다. ‘동네빵집 가루쌀빵 신메뉴 품평회’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20개의 가루쌀빵을 비롯해 가루쌀 맥주도 맛볼 수 있다. 또 가루쌀 제분 시연, 가루쌀빵 쿠키쇼, 가루쌀 과자 경품 추첨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쌀가공식품수출액은 매년 큰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2018년 8900만 달러였던 쌀가공식품수출액은 지난해 1억2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번 산업대전에서는 기업 홍보를 위한 온라인 전시관을 상시 운영하고, 중국·싱가포르 등 9개국 해외 바이어 대상 1대1 기업 연결 온라인 상담회도 진행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 산업대전에서는 850건, 298억 원의 상담액 실적이 이뤄졌다. 전년 대비 건수는 72.7%, 금액은 97.3%가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K푸드 수출 주요 품목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쌀가공식품 산업 발전 위해 산업대전을 비롯해 원료공급, 가공설비, 판로확대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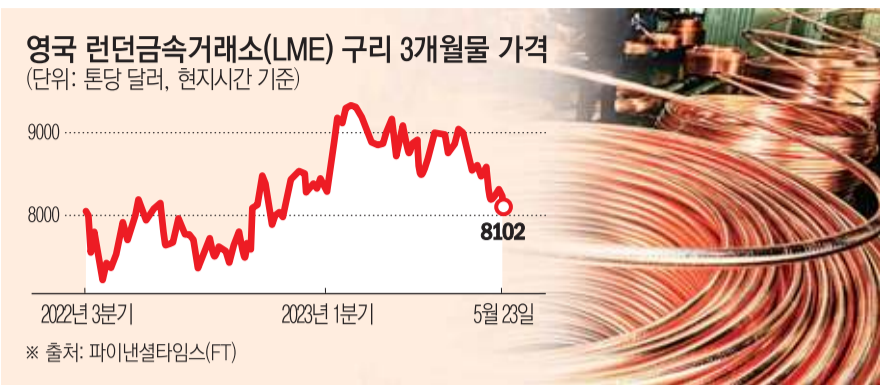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글로벌 경제 '잣빛'... 구리값, 17년 만에 '슈퍼 콘탱고'

중회복세 부진·서방 제조업 둔화 재고 급증에 현물가격 하방 압력 톤당 8000달러... 한달새 11% ↓

구리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가 17년 만에 최대로 벌어지는 '슈퍼 콘탱고'가 발생했다. 중국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한 데다 미국·유럽도 경기둔화 여파로 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구리 재고가 급증한 여파다. 경기변동에 민감해 경제 상황 가늠자로 알려진 '닥터 코퍼'가 세계 경제에 불길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날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현물 가격은 3개월물 선물보다 66달러 저렴하게 거래됐다.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는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일명 '슈퍼 콘탱고'가 일어난 것이다.



구리 가격은 한달 새 11% 급락해 톤당 8000달러(약 1053만 원) 선까지 밀리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수요 둔화로 재고가 급증하면서 현물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연초 구리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25% 이상 뛰며 1만 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중국 경제 회복세가 반짝 반등 이후 꺾이면

서 부진을 면치 못하자 구리 가격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구리는 건설, 인프라, 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는 금속으로, 실물경제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영국 원자재 중개업체 마렉스의 알 문로 금속 전략가는 "지난 수년래 올해가 최악"이라며 "강세장 시나리오의 배경이었던 중국 경기회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년에 걸친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여파

슈퍼 콘탱고 (Super-Contango)
콘탱고는 선물이 현물 가격보다 비싼 현상을 일컫는다. 수요 부족 또는 공급 과잉으로 저장 비용이 증가하면 이 가격 차이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즉 '슈퍼 콘탱고'가 생긴다.

로 미국과 유럽의 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구리 재고가 급증한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여겨졌던 중국마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다.

비금속중개업체 스톤엑스의 나탈리 스킷-그레이 애널리스트는 "구리 가격 움직임은 미국 달러 가치나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보다 실물 수요 약세에 주도되고 있다"며 "수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타격을 입었고, 그것이 구리 현물과 선물 가격 차를 벌린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서방의 제조업 둔화와 중국 회복세 부진을 이유로 올해 구리 가격 전망을 톤당 9750달러에서 8698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반영된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달러화 강세도 구리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달러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가 나타나 수요는 감소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ICE달러인덱스는 이달 들어 2%가량 상승했다.

수요가 둔화된 반면 공급 상황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가격 하향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 주요 구리 생산국들이 포진한 남미의 공급 불안이 완화되는 추세고, 세계적 구리 산지를 끼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의 텐케 풍구르메 광산(TFM)도 세금 분쟁을 매듭지으면서 공급을 늘리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美침체 전망, 럭셔리株 강타

유럽 명품사 시총 300억弗 증발 LVMH 회장, 순자산 112억弗 ↓ 높은 밸류에이션도 악재로 작용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기대감에 의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던 럭셔리 브랜드들이 되서리를 맞았다. 미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들의 올해 매출에 먹구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파리 증시에서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인터내셔널 주가는 6.54% 급락했다. 루이비통 모회사인 루이비통모헤네시(LVMH)는 5% 넘게 떨어졌고, 구찌 브랜드를 보유한 케링도 3% 가까이 밀렸다. 유럽 럭셔리 브랜드 시가총액은 하루 새 300억 달러(약 39조4770억 원) 이상 증발했다.

유럽 럭셔리 브랜드들의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 배경에는 모건스탠리가 있다. 에두아르드 오빈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모건스탠리가 주최한 럭셔리 컨퍼런스에서 "명품기업들의 미국 실적에 상대적으로 짓눌리고 있다"며 "특히 소비 여력이 없음에도 명품을 사왔던 '열망 소비자'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우리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착륙이 다른 시장의 강세로 상쇄될 수 있다는 판단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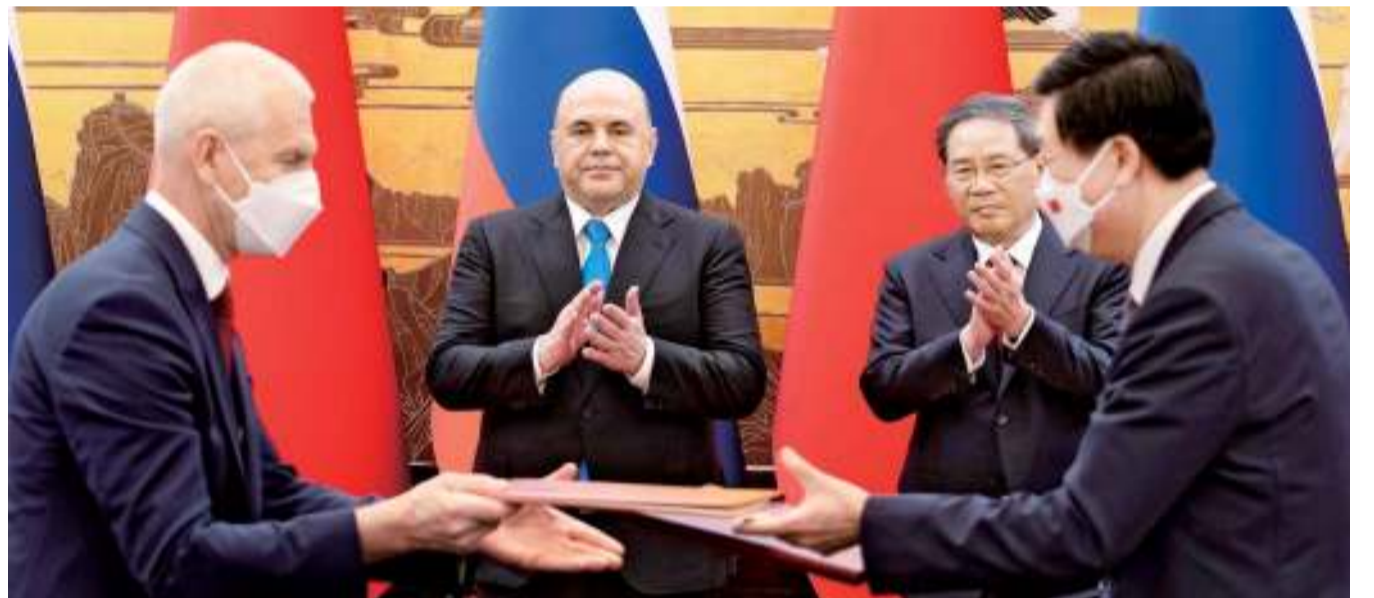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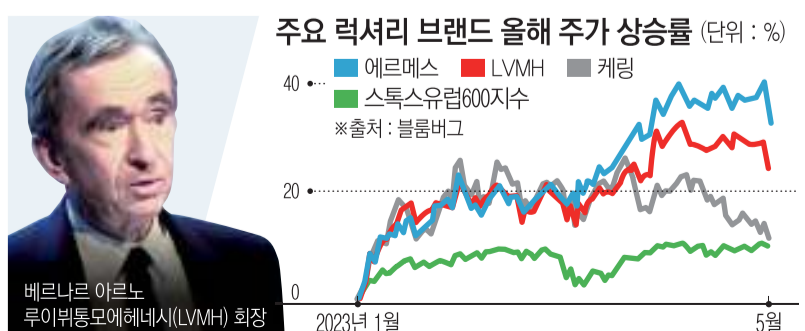
럭셔리 업계에서 미국은 아시아만

큼이나 중요한 시장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LVMH의 지난해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7% 정도로, 아시아는 30% 정도다. 미국 시장의 매출이 휘청이면 전체 회사 매출 타격도 클 수밖에 없다.

매트 갈랜드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는 미국 시장 우려와 함께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럭셔리 브랜드들의 주가는 올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미국증시에서 상승세를 견인했던 '빅테크'와 같은 역할을 했었다. 특히 고금리 기조에 부진을 면치 못했던 빅테크와 달리 중국 리오프닝 기대에 힘입어 꾸준히 우상향했다. LVMH 주가는 올해에만 25% 올랐고, 에르메스는 33% 뛰었다. 이는 같은 기간 유럽증시 벤치마크인 스톡스유럽600지수 상승률 10%를 크게 웃도는 성과다.

갈랜드 애널리스트는 "명품 기업 주가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에서 거래되고 있으면서도 많은 투자자로 여전히 붐비고 있다"면서 "중국 수요 증가가 명품기업들의 매출을 떠받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한편 주가 하락으로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 기준 세계 최고 갑부인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의 순자산도 하루 새 112억 달러가 증발, 2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격차가 120억 달러로 줄어들게 됐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G7 기점 더 밀착하는 中-러 미하일 미수스틴(맨 뒤 왼쪽) 러시아 총리와 리창(맨 뒤 오른쪽) 중국 총리가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 협력 서명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폐막 이후 이뤄진 것이다. 이날 체결된 협정에는 무역서비스 분야 투자협력 심화 협정, 중국 농산물 수출협정 등이 포함됐다. 베이징/AP연합뉴스

챗GPT에 올라탄 MS 검색엔진 '빙'

윈도11 AI비서 '코파일럿' 탑재 등 글로벌 검색시장서 구글에 도전장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터넷 검색 시장의 절대 강자 구글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는 이날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에 자사의 검색 엔진 '빙'을 탑재한다고 발표했다.

유료 서비스인 챗GPT 플러스에는 이날부터, 무료 구독 챗GPT에는 조만간 기본 검색엔진으로 빙이 제공된다. 특히 무료 구독 챗GPT는 2021년 9월까지의 정보를 기초로 해왔지만,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이용자들에게 더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양사의 이번 협력은 구글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전 세계 검색시장에서 MS의 점유율을 끌어올릴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챗GPT는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두달 만에 1억 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았는데, 이

들이 모두 빙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빙의 점유율은 현재 한 자릿수다.

사티아나델라MS 최고경영자(CEO)는 "이것은 빙의 장점을 챗GPT 경험에 제공하기 위해 오픈AI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계획의 시작일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MS는 윈도11에도 AI 비서 '코파일럿(부조종사)'을 탑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능은 6월부터 시험 제공된다. 이용자들은 작업 표시줄에서 윈도 코파일럿을 실행해 작업을 지시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코파일럿은 소프트웨어 조작, 설정 변경, 정보 검색과 요약 등을 자동으로 도와준다. 변효선 기자 hsbun@

애플도 脫중국... 美브로드컴과 5G부품 계약 연장

애플이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과 5세대(5G) 이동통신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다년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RBAR 필터를 포함해 5G 무선주파수(RF) 부품과 최첨단 무선접속 부품을 개발하고, 이를 애플에 공급한다. 브로드컴은 5G RF 관련 통신 부품을 콜로라도주 포트콜린스 등 미국 내 여러

거점에서 설계·제조할 예정이다.

브로드컴은 애플의 주요 공급 업체 중 하나다. 양사는 2020년에도 3년 계약을 맺었으며, 브로드컴 연매출의 약 20%는 애플과의 거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드컴은 이번 계약으로 핵심 자동화 프로젝트와 엔지니어 기술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 내 투자를 한층 더 확대한다. 애플은 2021년 향

후 5년간 미국에 4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브로드컴과의 계약은 이러한 약속의 일환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이번 거래 규모가 150억 달러(약 20조 원) 이상이며, 기간은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제조업의 혁신 정신과 독창성, 창의성을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애플의 모든 제품은 미국에서 개발되고 제조되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의 '동행'... 中企 600곳에 지능형 스마트공장 지원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3.0'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을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통해 매년 100억 원씩 3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자해 600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담 조직도 별도 구성해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이미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해 기초적 데이터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한다.

설비와 자재, 부품 등을 최적 환경에서

3년간 300억... 中企·지역 상생

AI·데이터 활용한 지능형공장

인구소멸지역 우선 '지역균형'

자생적 스마트공장 생태계 구축

2015년부터 3000여곳 지원

관리하고 작업 동선을 효율화하는 기본 혁신 활동을 끝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 현장의 문제점을 선제 대응하는 '지능형 공장' 수준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한다.

지역 균형발전도 스마트공장 3.0의 중요한 목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담 조직을 구성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에너지 절감 과 친환경 소재 활용을 통한 탄소배출 감



삼성전자는 24일 중소기업 제조 현장을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부산 소재 도금 기업인 '동아플레이팅'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소 등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속 가능경영(ESG)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새로 시작하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은 지자체와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았던 수혜 기업까지 동참해 지역별로 '자생적 지역

스마트공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진화된 사업 모델도 추진된다.

전라북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신청 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

을 일부 지원한다.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했던 전라북도에는 중소기업 대표들도 지난 3월 자발적으로 모여 '민간멘토단(삼성 스마트 CEO포럼)'을 출범시킨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동행' 철학에 따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실현해 온 대표 CSR(사회적 책임) 사업이다. 2015년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8년간 전국 중소기업 총 3000여 곳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지난해 9월 중소기업중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사업 지원을 받은 국내 중소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동일 업종·규모 기준) 대비 2017~2020년 사이 평균적으로 매출은 23.7%, 고용은 26%, 연구·개발(R&D) 투자는 36.8% 만큼 각각 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섭 기자 citizen@



"스튜디오 촬영에 최적"... LG 매그니트 출시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LG전자가 이번에 선보이는 'LG 매그니트'는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화질을 기반으로 스튜디오 촬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들을 대거 적용했다. LG 매그니트는 LG전자 고유의 디스플레이 표면 처리 기술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더라도 색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특징이다.

LG전자가 베투출력 프로덕션에 최적화한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신제품을 선보인다는 LG전자가 이번에는 선보이는 'LG 매그니트'는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화질을 기반으로 스튜디오 촬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들을 대거 적용했다. LG 매그니트는 LG전자 고유의 디스플레이 표면 처리 기술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더라도 색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특징이다.

사진제공 LG전자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차 분석' 대학강의에 깜짝 등장한 정의선

연세대 경영대 사례연구 참관 "현대차 사업 이해도 높아 놀라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연세대학교에 깜짝 방문해 경영학과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했다.

24일 연세대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1일 연세대 경영대학 이무원 교수의 수업에 참여했다. 강의에는 송호성 기아 사장, 김홍수 현대차그룹 부사장, 조화순 기아 사외이사(연세대 교수) 등도 함께했다.

이날 강의는 현대차그룹과 정 회장의 파괴적 게임 체인저 비전과 혁신을 심층 분석한 사례 연구인 '현대차그룹: 패스트 팔로어에서 게임 체인저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 교재로 활용된 사례 연구는 이 교수가 윌리엄 바넷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및 지속가능대학 석좌교수,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한국경영학회 회장)와 공동 집필했다.

사례 연구는 현대차그룹을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창조적 파괴자'로 정의하고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 또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제조업의 추격자 중 하나가 아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의 판도를



정의선(앞줄 오른쪽 세 번째) 현대차그룹 회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열린 수업을 참관한 뒤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연세대학교

주도해 나가는 게임 체인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서 연세대 경영학과 학생들은 게임 체인저 비전 아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현대차그룹의 혁신에 주목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신사업, 비전, 경영 성과, 기업문화, 도전 과제 등에 대해 100분여 동안 토론을 펼쳤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의 혁신 전략에 대한 학생들의 열띤 토론과 다양한 평가·분석을 경청했다.

정 회장은 "여러분들의 현대차그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놀랐고 고맙다"며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

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 드리고 싶다"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학생들과 정 회장 및 현대차그룹 임원진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공유하는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정 회장은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자질과 능력을 잘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키기를 바란다"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삼성 2분기 실적, 스마트폰에 달렸다

전분기비 영업이익 63.5% 감소 추정 MX·네트워크 실적 급감 가능성에 일각선 '적자전환'... 돌파구 고심

반도체업황 반등 신호에도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실적이 전분기보다 악화할 전망이다. 반도체 부문 영업손실은 개선될 것지만 스마트폰 사업부의 이익창출이 주춤하면서 전체적인 수익성은 축소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2331억으로 1분기 6400억 원 대비 63.5%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적자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유는 스마트폰 사업 등을 담당하는 MX·네트워크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2분기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의 영업손실액은 3조 60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MX·네트워크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2조 7000억 원에 그치며 전분기보다 1조 2000억 원가량 줄어들면서 전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MX·네트워크 사업부의 2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지난 2월 선보인 갤럭시 S23 시리즈 출시 효과가 약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통상 스마트폰 비수기인 2분기 보급형 '갤럭시 A 시리즈'를 통해 중저가 시장인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능을 강화한 '갤럭시 A 24·34' 모델을 순차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보급형 제품의 주력인 '갤럭시 A54'도 조만간 국내 판매에 들어간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돌파구 마련을 위해 폴더블폰 차기작인 '갤럭시 Z 폴딩5·폴드5' 출시일을 예년보다 2주일가량 앞당길 것이라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은 스마트폰 부문에 달렸다"며 "삼성전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수요 위축에 대응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폴더블폰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3분기부터 스마트폰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장효진 기자 js62@

두산, WCE 2023서 '무탄소 에너지 토털솔루션' 선보

원자력·수소·풍력 에너지원 활용 국내 기술 수소터빈 모형 첫 공개

두산이 국내 최대 에너지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원자력, 수소, 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 기술을 선보인다.

두산은 25일부터 사흘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2023)'에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퓨얼셀, 두산퓨얼셀파워 BU 등이 참가한다고 24

일 밝혔다. WCE2023은 개별적으로 열린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탄소중립 컨퍼런스', '탄소중립EXPO' 등 관련 행사들을 통합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에너지, 기후, 환경 분야 종합전시회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산·학·연과 함께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수소터빈의 6분의 1 크기 모형을 국내에 최초로 공개한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원전 주기기 모형을 전시하고, SMR 파운드리로서 SMR 제작을 위한

첨단기술도 알린다. 또 국내 서남해 환경에 최적화된 8MW급 해상풍력발전기를 포함한 풍력발전 라인업과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공급 실적 등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풍력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국내 최초의 수소액화 플랜트 등 청정수소 관련 핵심기술 현황도 선보인다.

두산퓨얼셀은 올 하반기 사업화를 준비 중인 앞둔 양성자 교환막(PEM) 방식의 수전해 시스템을 공개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지금 어디 가나요?

도움이 필요한 '우리 모두'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재난재해 지역
우리동네 선한가게
농어촌 학교까지!]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간다



누구든 다~
우리잡아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진투자기법’ 도입 근거 마련… 벤처시장 활력소 되나

벤처투자법개정안 본회의 상정

투자조건부융자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만 남겨두면서 얼어붙은 벤처 투자 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근거법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낸 법안을 통합·조정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 유치를 위한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의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벤처투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 근거 마련
-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사 겸업 관련 투자사무 적용방식 개선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법적 명칭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실리콘밸리식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기업가치 확정 후 전환사채 발행 저금리 투자조건부융자 등 포함

“원활한 자금조달로 기업에 단비” 정부 “연 8조 벤처펀드” 급물살 금융위 “올해 내로 개정 이룰 것”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스타트업에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은 쉽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투자자는 원리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투자조건부융자는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으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저리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다.

법제사업위원회는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다른 법 시행령을 인용해 규정하지 않고,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도록 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 압박에 시달리는 벤처기업들 입장에서는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에 폭넓은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펀드 결성 규모를 연간 8조 원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급물살을 타게 된다. 경기 악화와 실리콘밸리 은행(SVC) 파산 사태 등으로 위축됐던

투자 심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는 경우에 대한 투자사무 적용 방식도 개선한다. 현행법은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사무,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겸업하는 경우 투자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벤처펀드가 별도 투자목적회사(SPC)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도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벤처투자조합이 필요한 경우 차입이 가능한 SPC를 설립해 효율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인수·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수·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내에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쓰이던 법적 명칭은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도록 했다.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된 취지에 맞도록 바꿨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기술가치투자 이제 퍼트려(PTR)! SK증권 PTR랩



PTR : 주가기술비율(Price Technology Ratio)로 상장사가 보유한 특허가치를 주가와 비교하는 지표임. PERO나 PBR처럼 기술가치대비 주가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 투자자는 랩 계약에 대하여 SK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이 랩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이 랩 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가입하시기 전에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필히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랩 계약의 선취수수료는 없으며, 운용보수 연 1.5%(분기별 0.375% 후회), 성과보수는 고객과 별도 협의로 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경기 위축에 주춤했지만… 소록스, 수주 증가로 반등 기대

지난해 영업익 43억 적자에도 국내 주택시장 반등 기대 물신 원자재값 하락도 ‘긍정적 영향’

조명기구 제조기업 소록스가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건설사의 수주 지연으로 실적이 주춤하고 있다. 소록스는 하반기엔 다시 수주 증가와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소록스는 하반기 수주 증가와 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소록스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약세와 함께 건설 경기 위축이 이어지면서 건설사 수주가 지연됐다.

건설사 수주는 보통 4분기 물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 건설 경기 위축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건설사들의 수주가 올해 1분기로 연기됐고, 일부는 2분기까지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주가 연기되면서 지난해 매출액은 558억 원에 그쳤고 영업이익은 43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소록스는 건설사를 상대로 LED 등과 형광등, 실외등(가로등·터널 등)을 공급하고 있다. 기업고객 대상 외에 대리점과 인테리어업체, 온라인몰 유통 등 일반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했지만, 아직 건설사 수주가 74.3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고객(B2C) 비중은 1.31%에 불과하다. 때문에 건설 경기는 실적과 직결된다.

다행히 국내 주택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월 기준 전국 미분양은 7만2104세대로 2월 7만5359세대보다 4.4% 감소했다. 아직 높은 미분양 물량이지만, 가파르게 늘어나던 수준보다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지역 미분양 감소가 두드러졌고 미분양 위험이 가장 큰 곳으로 지목된 대구도 한풀 꺾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록스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 하락 징후도 반갑다.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터라 판매 가격이 반영하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익률이 낮아지는 주요 원인이었다.

FT에 따르면 전년 만기가 이틀 남은 구리 현물은 3개월 인도분 선물보다 66달러 낮았다. 구리는 건물부터 가전제품까지 현대 사회의 제품 전반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어 ‘닥터 코퍼’로 불린다.

소록스 관계자는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판매단가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아직 가시적인 것은 없지만 2~3분기 정도에 이익 실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TL 첫 느낌, 리니지와 다른데”

가보니 베타테스트 현장

엔씨 다섯번째 플래그십 타이틀 전국 11곳에 ‘거점 PC방’ 운영 테스트로 1만명 이상 참여 예정 “모바일 아닌 PC 게임 반가워” 반차 내고 온 직장인 게이머도



반차를 쓰고 TL 베타테스트에 참여한 직장인 홍 씨는 “무엇보다 재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가 다섯번째 플래그십 타이틀 쓰론앤리버티(Throne and Liberty·TL)의 베타테스트를 시작한다. 엔씨는 총 1만명 이상의 테스트 참가자들을 통해 게임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을 듣고 막바지 담금질에 들어간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채택되지 않은 일반 이용자들도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11곳에 거점 PC방도 운영한다.



거점 PC방에는 엔씨가 마련한 ‘체험존’이 마련됐다. PC방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도 최대 1시간까지 무료로 TL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엔씨)는 신작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쓰론앤리버티(Throne and Liberty·TL)의 베타테스트를 이날 오후 4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연내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객관적인 피드백을 듣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테스트에는 선발된 5000명의 이용자와 이들이 각각 초대된 1명의 친구를 포함 총 1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여기에 NC 다이노스의 연구진인 창원을 포함한 전국 주요 11개 도시에 ‘거점 PC방’을 운영해, 선발되지 못한 일반 이용자도 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다. 거점 PC방에는 엔씨에서 운영하는 별도 ‘테스트 존’이 준비돼 있다. 이용자들은 테스트 존에서 최대 1시간까지 TL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본지는 테스트가 시작되는 이날 오후 4시 서초구 소재 ‘TL 거점 PC방’을 찾았다. 현장에서 만난 한 이용자는 “TL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우연히 PC방에 놀러 왔다가 테스트 존 표지를 보고, 테스트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게임을 조금 플레이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웰메이드 게임이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테스트존 이용자는 “기존에 엔씨 게임 중 PC 리니지나 아이온 같은 게임을 했었다”면서 “이번에 TL이 최근 게임과 달리

완전 모바일 게임은 아닌 것 같아서, 체험해보기 위해 반차를 쓰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BM이 리니지와 다를 것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지만 일단해보려고 한다”면서 “BM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재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TL은 엔씨의 다섯번째 플래그십 타이틀로 PC와 콘솔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모바일 버전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 중인 ‘퍼플’ 플랫폼을 통해 원격 플레이도 지원한다. 게임은 날씨나 환경에 따라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심리스 오픈월드’, 이용자가

두 가지 무기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역할이 변하는 ‘프리클래스’ 등이 특징이다. 스토리에도 민감한 해외 유저들을 겨냥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어지는 네러티브에도 공을 들였다는 설명이다.

엔씨는 이번 테스트에 다양한 콘텐츠를 있는 그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세계관과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기존 RPG 장르의 ‘업적’과 유사한 ‘코덱스’ 시스템, 서버 단위로 이용자들의 협동에 따라 해금되는 콘텐츠인 ‘메모리얼’, 이용자들 간 아이템 거래를 위한 ‘거래소’와 ‘길드’ 시스템이 모두 공개된다.

가장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수익모델(BM) 역시 현재까지 기획된 내용을 가감 없이 공개할 예정이다. TL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최문영 PDMO는 전날 개발자 노트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내부에서도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테스트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면서도 “현재까지 준비했던 상품들 중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엔씨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테스트 기간 동안 제공되는 이벤트 재화를 통해 유료 아이템 BM까지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엔씨 관계자는 “사전 신청 및 거점 PC방 이용자 등 1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식 서비스에서는 보다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이라면서 “이번 테스트를 기반으로 게임성과 BM 등 최종 담금질을 통해 TL을 연내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이시은 기자 zion0304@

누리호 통신장비 이상 오늘 발사 재시도할 듯

(오후 6시 24분)

발사 2시간 앞두고 연기 발사대 세워둔 채 작업 가능 오늘 오전 중 발사 여부 발표



오대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4일 오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누리호 3차 발사 연기 발표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기 발사 2시간여를 앞두고 연기됐다. 누리호 발사를 준비하던 중 극저온 헬륨공급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발사 제어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제어 컴퓨터 간 통신에 이상이 발생했다. 기체 자체의 문제가 아닌 만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이르면 25일 발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대석 제1차관은 24일 오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과정 중 저온 헬륨을 공급하는 기구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생했다”며 “밸브 자체는 문제가 없어서 수동으로 작동이 되지만 자동 운영 모드에 가면 이상으로 인해서 중단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6시 24분으로 예정된 발사는 취소하기로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차관은 “발사체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어서 발사체는 기립 상태를 유지한 채 오늘 중으로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진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작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의 문제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감지된 시점은 오후 3시경이다. 당초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연료·산화제 충전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통신 장비 문제가 발생하면서 연료 주입 등 발사 준비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 단장은 “낮 12시 24분부터 발사 운용 절차를 시작하고 발사체 내부 추진기관 점검을 하던 중에 이상이 감지됐다”라며 “2차 발사 때와 달리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문제가

기 때문에 세워둔 채 작업이 가능하며 내일 오전까지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조치가 완료된다면 오후 6시 24분에 바로 발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내일 오전 중으로 해결이 된다면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발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누리호 2차 발사 때는 산화제 탱크의 센서에 문제가 발생해 누리호를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 점검한 반면 이번 3차 발사의 경우 발사체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에 발사대에 세워둔 채로 점검한다. 현재 설정된 누리호의 발사 예비일은 25일부터 31일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발사 일정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여기에 발사체가 기립된 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고 본 부장은 “우리가 싣고 가는 위성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있겠고 발사대 내부로 각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끗한 공기를 계속 공급하는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는데 며칠은 버티더라도 그걸 무한정 길게 버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직후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프레스룸을 방문해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최대한 문제의 원인을 살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일 발사할 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고흥=김나리 기자 nari34@

카카오 ‘RE100’ 가입… “2040년 100% 재생에너지로”

신규 IDC·사옥 전체 사용량 대상 “탄소중립 등 ESG경영 이어갈 것”

카카오가 2040년까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ESG 경영을 한층 강화한다.

카카오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전세계 400여 곳 이상의 기업들이 가입해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제주 오피스를 운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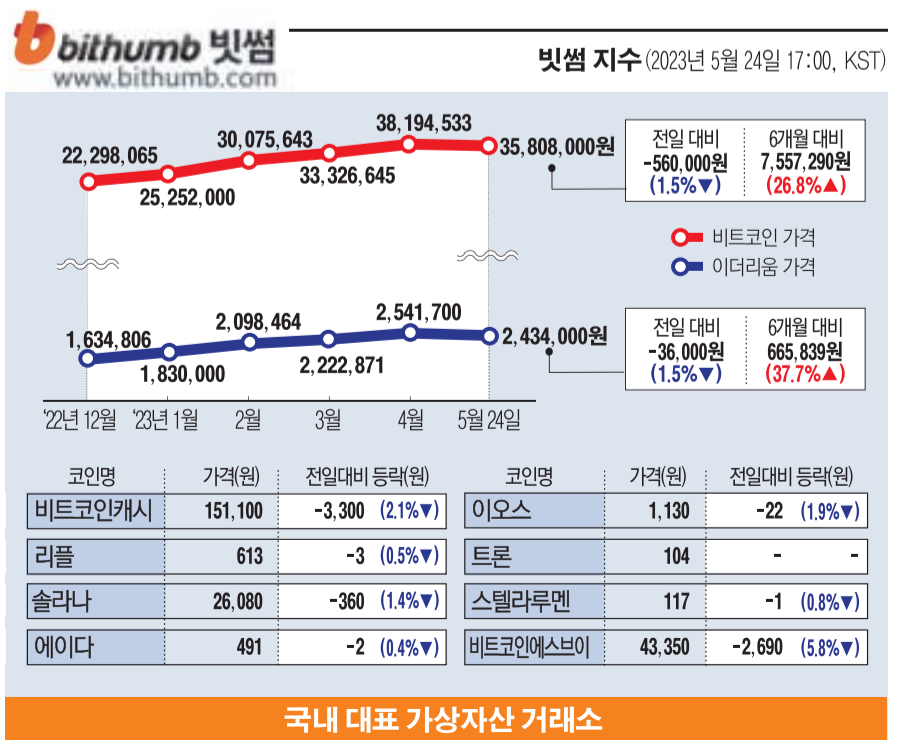
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100%를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로 전환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 각지의 시민조합에서 직접 생산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했다.

카카오는 이번 RE100 가입을 기점으로 신규 데이터센터(IDC)와 사옥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전력 사용량을 오는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재생에너지 자문위원단을 구축해 RE100 추진과 함께 탄소 감축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갈 예정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RE100가

입은 지난해 선언한 ‘Active Green Initiative’의 일환이자, 기후 위기 대응에 지속 동참하려는 카카오의 의지”라며 “탄소 중립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경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해 4월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수립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Active Green Initiative)’를 발표했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제로(Carbon-zero)를 목표로 하는 넷 제로(Net-ZERO)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전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집값 바닥 감지했나... 외국인, 韓부동산 다시 쇼핑

지난달 外人 소유권 이전登記 건수 전월比 9.25% ↑ ... 3개월째 증가세 중국인, 1~4월 전체 거래 45% 차지 "투기 매매 늘면 국민에 피해 우려"

그간 주춤했던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다시 시작하는 모양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다시 늘고, 일부 지역에서 가격도 오르는 등 반등 분위가 번지자 외국인들도 다시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소유권 이전登記 건수는 총 21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967건 대비 약 9.25% 증가한 수치다.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부에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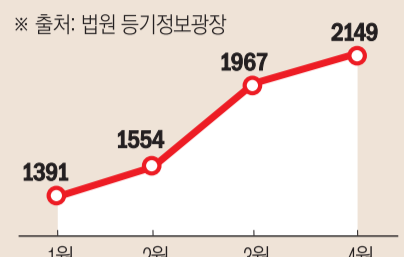
실제로 올 들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량은 계속 증가세다. 1월 외국인 부동산 매수 건수는 1391건으로 집계됐는데 이후 △2월 1554건 △3월 1967건 △4월 2149건 등 3개월 연속 늘었다.

지난달 외국인 부동산 매수 건수(2149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8건), 경기(804건), 인천(285건) 등 수도권이 1437건으로, 전체 거래의 약 67%를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충남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에 이어 △전남 98건 △경남 63건 △제주 54건 △부산 51건 △충북 50건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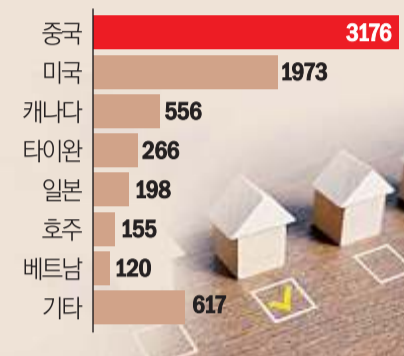
특히 중국인의 매수량이 크게 늘고 있다. 올해 1~4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량 전체 7061건 가운데 중국인 거래량은 3176건으로, 약 45%에 달했다.

중국인 매수량은 △1월 518건 △2월 611건 △3월 996건 △4월 1051건 등 매달 증가세다. 중국에 이어 △미국 1973건 △캐나다 556건 △타이완 266건 △일본 198건 △호주 155건 △베트남 120건 △기타 617건

올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집합건물·토지·건물) 매수 건수 (단위: 건)



외국인 국적별 부동산 매수 건수 (단위: 건, 1~4월 기준)



198건 △호주 155건 △베트남 120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어나면서 세를 놓는 외국인 집주인들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외국인 임대인 현황을 살펴보면 1분기 외국인 임대인 수는 전체 45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3956명보다 약 14% 늘어난 수치다.

업계에서는 통상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본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지나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입도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5만23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4만1191건 대비 27%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계속 줄었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2만5761건 이후 상승 반전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현재

집값이 바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거래가 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분명 외국인들에게도 자극을 줬을 것"이라며 "또 내국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이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내국인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부동산 상승기 당시 이들의 국내 유입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투기성 거래 의심 거래에 관해 기획조사 실시하고, 567건의 위법·심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서진형 공적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주택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투기 시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세금을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오세훈 서울시장>

뜻의 '정원도시' 청사진... 서울 도심에 2063km 초록길 조성



24일 서울시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문현호 기자 m2h@

딱 찬 도심 숨통 틈을 정원 만들고 공원-녹지-산책로 여가공간 조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시장에서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서울링',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 등이 관광객 3000만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고 채우는

방향의 계획이었다면 정원도시 서울은 오 시장의 시정철학으로서 도시계획보다 앞서는 녹지 우선 도시공간 재편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최근 세계 여러 도시는 도시경쟁력 제고와 미래사회로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환경도시, 녹색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녹색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보라매공원 재정비, 노을공원 개장, 북서울꿈의숲 조성, 수성동 계곡 복원 등 대규모 이적지, 유휴 공간에 대형공원을 만들었다. 하지만 국립공원 등 외곽산림

을 제외한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56㎡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용 △연결 △생태 △감성이란 4가지 전략으로 정원도시 서울을 추진한다.

우선 딱 찬 도심의 공간을 비워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열린 정원으로 조성한다. 송현동 부지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정원으로 비우고 용산공원 내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 정원을 선보일 계획이다. '마곡3지구 문화시설부지'는 서울식물원과 연계해 계절별 야생화를 심고 시민이 즐겨찾는 여가공간으로 꾸

민다.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영동대로, 국회대로, 경부고속도로의 구간 상부는 정원으로 꾸며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또한 시민이 더 가까이에서 여가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공원, 녹지대, 산책로를 연결한다. 서울 전역의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고 정비하는 사업인 '서울초록길'을 오는 2026년까지 총 2063km의 녹색네트워크로 만들 계획이다.

기존에 8개였던 '서울둘레길'은 21개 코스로 나눠 짧고 다양한 구간으로 시민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늘이 없어 오래 머물기 힘들었던 서울광장은 소나무 숲으로 만들고 추가 식재를 통해 그늘숲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전보규 기자 jbk@

www.amarant10.com | 대표번호 1688-5000

DOUZONE

기업의 디지털 전환 아마란스10이 답입니다

기업의 업무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시간을 가치 있게 소비하며
언제, 어디서나 모든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



Amaranth 10 더 알아보기

새로운 차원의 융합-연결-공유를 통해 일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꿉니다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하나에 담아 어떤 업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속도는 혁신적으로 빨라지고 데이터의 공유부터 관리까지 편리해집니다

솔루션 관련 비용절감은 물론,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던 업무시간도 절약됩니다

- 회계관리
- HR
- Groupware(UC)
- 임직원 업무관리
- CRM
- 웹오피스(문서 관리)

큰 미래를
꿈꾸는 기업이라면
준비하세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은행이 응원합니다




은행, 이젠 가지 말고 TV켜세요!

먼 은행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서류를 어렵게 챙기지 않아도

TV만 켜면 만날 수 있는 은행
그래서 더 가까운 은행
그런 은행을 꿈꿉니다

고객을 위한 새로운 금융,
신한은행의 노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은행을. 집에서. TV로. 
신한 **홈뱅크**



*신한 홈뱅크는 KT 지니TV 채널 777에서,
기가지니 셋톱박스 3.A사용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 서비스 화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상세 서비스 내용은 kt.com > 상품 > 시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3-12307-1호(2023.05.25 ~ 2023.12.31)

대손충당금 3조 이상 쌓아야... 추가 요구에 부담 커진 은행

5대 은행 1분기 전입액 8801억 작년 2407억보다 3.6배 늘어나 금융당국 하반기 추가 적립 압박 "과도한 적립 증가에 부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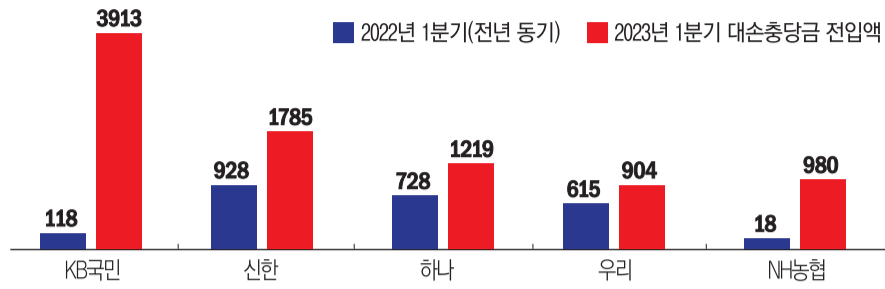
올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손충당금 전입액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은행권에 추가 자본·충당금 적립을 통해 건전성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5대 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액 규모가 3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지난해(2조9071억 원)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5대 은행의 1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총 88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407억 원) 대비 3.6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직전 분기(1조3928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주요 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지속해서 충당금 추가 적립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월 금리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손 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상반기 중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은 5월 현재 규제 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후 상반기 중 시행되면 금융위가 향후 은행의 예상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5대 은행 1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 (단위: 억원) ※ 출처: 각사



된다. 하반기에도 추가자본적립요구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완충 자본제도 도입은 은행권 제도개선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yB) 적립수준도 내년 5월 1일부터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금융부문 리스크 증

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금융당국의 요구가 하반기 은행권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경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극단적인 규제 강화는 유동성 공급 축소, 소방수 역할 축소 등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은행업권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도 불편한 선택지"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당국의 건전성 관리 기조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할 것이 라면서도 부담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오면 대비를 하라는 당국의 조치에 동의한다"면서도 "충당금을 과도하게 쌓으면 고객들에게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에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등 상대적으로 자본여력이 적은 은행일수록 부담이 커진다고도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상 0% 수준이었던 CCyB 적립수준이 1%로 오르면 은행들이 그만큼 위험기중 자산을 늘리지 않게 된다"며 "시중은행 외 은행들 입장에서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등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배당을 줄이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하영 기자 haha@

이자 바로 받기... 청년전세대출... 인뱅, 불붙은 수신경쟁

토스뱅크 '이자 바로 받기' 인기 카뱅, 청년전세대출 시장 선점 케이뱅크, 업계 첫 차대출 진출

인터넷전문은행이 최근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품을 연달아 내놓으면 경쟁 구도가 심화하고 있다. 업권 최초로 자동차대출 원스톱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예고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수신·여신 상품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케이프박스에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케이프박스는 카카오뱅크의 파킹통장으로

하루만 맡겨도 연 2.40%(세전) 금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카카오뱅크 케이프박스 고객들은 한 달에 한 번, 매 월 네번째 금요일의 다음날에 이자를 수령했다.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 출시로 고객들은 원할 때 바로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는 토스뱅크가 지난해 3월 업계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이자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면서 '혁신금융'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토스뱅크는 올해 3월, 선이자 지급형식의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을 내놓으면서 혁신금융 대표 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은 출시된 지 한 달여 만에 판매액이 1조 원을 넘

인뱅 3사 여·수신 상품 출시 계획

회사	내용(일정)
카카오뱅크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 (5월 24일)
토스뱅크	청년전세대출(6월)
케이뱅크	자동차대출대환 상품(상반기) 자동차대출 원스톱 프로세스(연내)

어섰다. 지난 3월 24일 출시 이후 나흘 만에 1000억 원, 보름 만에 5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하루 평균 약 303억 원씩 유입되고 있다.

여신상품 라인업 확대에도 나선다. 토스뱅크는 카카오뱅크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청년전세대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토스뱅크는 다음달 청년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체 청년 전세대출액 중 62%가 카카

오뱅크를 통해 이뤄졌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 2월 청년전세대출 상품을 먼저 출시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업계 최초로 자동차대출 시장에 진출한다. 케이뱅크는 이날 도이치모토모빌그룹과 협력해 연내 중고차 조회부터 자동차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프로세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반기 중에는 자동차대출대환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자동차대출은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주요 상품으로 여겨졌다.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중 처음으로 자동차대출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됐다. 인터넷은행의 편리한 UI·UX로 비대면 편의성을 높이고, 1금융권의 낮은 대출금리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김병근 기자 nova@

아동 심리치료 활동 흥국생명 '마음키움'

흥국생명은 그룹홈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마음키움'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총 18명의 그룹홈아동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진행된다.

'마음키움'은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그룹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집단매체 심리치료 활동이다. 불안정한 성장 환경으로 인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그룹홈 아이들의 불안감 및 우울감 극복과 정서적 안정감 회복이 목적이다.

'마음키움'은 심리치료 전문가의 지도 하에 진행되며, 독서치료, 동작치료 등 아동별 심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한, 그룹홈의 양육자를 대상으로도 전문가를 1:1 매칭해 아이들의 정서적 지지 및 집단 특성에 따른 양육기술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서지연 기자 sjy@

KB국민은행, 해수부와 해양생태계 보전 앞장

KB국민은행은 해양수산부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바다 사막화가 진행 중인 해역 내 잘피숲을 조성하는 등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활동해왔다. 해안지역의 유실 침적된 쓰레기를 수거해 해양생물 서식지를 보전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에 힘썼다.

이번 MOU 체결로 KB국민은행은 해수부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KB 바다숲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잘피숲 조성 과 연안 정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할 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정부와 기업 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협력의 모범 사례가 돼 더 많은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KB바다숲 프로젝트를 적극 추



조승환(왼쪽)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2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국민은행에서 열린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KB국민은행

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금융위, 교육부와 IT인재 채용설명회

금융위원회가 고졸 인재의 금융권 취업과 금융권의 우수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금융 정보기술(IT) 인재 채용 설명회'를 25일 개최한다. 디지털 혁신에 따라 금융IT 등 새로운 금융 부문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가 교육부와 협력해 채용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설명회에는 주요 은행 인사담당자와 금융·IT 분야 직업체고 등 교육기관 취업담당자 약 200명이 참석해 인재 양성 및 채용과 관련된 각각의 현황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와 교육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각 회사의 금융·IT 관련 직무 현황과 채용 희망 인재상, 2023년 채용계획 등 취업 정보 및 취업 후 지원·육성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또한, 고졸 인재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금융권 재직자의 취업 관련 실제 경험담과 채용 우수사례를 소개해 학교에서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현실

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교육기관은 금융·IT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교육현황을 공유하고 구인·구직 연계 지원정책 등을 안내해 고졸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금융사가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선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같은 교육·금융분야 협력을 통한 채용 설명회 개최는 최근 금융IT 등 새로운 부문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내 IT 등 경영관리 분야 인력 비중은 2013년 16.3%에서 지난해 19.8%로 3.5%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영업·마케팅 분야 인력은 2013년 68.8%에서 지난해 56.6%로 줄어들었다.

금융권은 디지털 기술 발전 및 업무 자동화 추세에 대응해 자체적인 IT 인력 확보를 확대하고 있다. 은행권 IT 인력 중 자체 채용한 IT 인력 비중은 2017년 47.7%에서 2021년 55.3%로 늘었다. 유하영 기자 haha@

부자들 자산관리 비법은?... SC제일은행 'PB 다이어리'

SC제일은행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자들의 자산관리 비법을 살펴보는 유튜브 콘텐츠 'PB 다이어리'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PB 다이어리는 SC제일은행 PB RM(Priority Banking Relationship

Manager)들의 상담 수첩에 담긴 부자들의 자산관리 고민과 해결 방안이 착안한 콘텐츠다. '진짜 부자들의 자산관리 시크릿'이라는 부제로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관리 비밀을 찾아보고 벤치마킹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10년

이상의 풍부한 자산관리 업무 경험을 가진 베테랑 PB RM 3명이 출연해 부자들의 자산관리 사례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 비밀을 밝힐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의 PBRM은 고객 자산가 고객들을 전담해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인 '프라이어리티 बैं킹'을 제공하는 자산관리 전문가로 약 300명이 근무 중이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개인 팔고, 外人 반도체 줍고... “강세장”이나 “더블딤”이나

전고점 앞두고 즐다리기

외인, 반도체 등 11.3兆 순매수
개미 10조 순매도...기관은 관망
전문가들 증시 방향 ‘갑론을박’

코스피에서 11조3000억 원을 순매수한 외국인과 10조 원을 순매도한 동학개미(개인 투자자). 올 들어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는 지수 상승을 전망하는 외국인과 주식을 내다 파는 개인 사이에 치열한 즐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개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것은 증시에 약세지만, 외국인들이반도체를 사고 있다는 것은한국경제와 증시의미래가 밝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와중에 기관들은 특정한 방향성 없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0포인트 빠진 2567.45에 마감했다. 지난달 18일 장중 최고점인 2582.23에 바짝 다가섰다.

코스피의 큰 상승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차근차근 이루어졌다. 특히 시가총액비가 가장 큰 삼성전자에 멧잇돈이 몰리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

연초부터 이달 24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로 9조1983억 원을 기록했다. 2위는 현대차로 1조2379억 원, 3위는 삼성SDI(9512억 원)가 차지했다. 이 중 외국인들의 사랑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에 몰려있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봐도 될 정도다.

외국인은 연초부터 24일까지 11조 3641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 중 9조

외국인 순매수 상위종목

(단위 : 원) ※ 1월 2일~5월 24일

종목명	순매수 거래대금
삼성전자	9조1983억
현대차	1조2379억
삼성SDI	9512억
기아	5413억
LG전자	5117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984억
현대모템	4218억
SK하이닉스	4084억
LG에너지솔루션	3746억
삼성엔지니어링	3680억
하이브	3252억
삼성전자우	3147억

※출처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1983억 원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 몰렸다. 비율로 보면 81%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커플링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코스피가 연저점을 찍을 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장중 5만4500원으로 최저가를 보였는데, 이달 24일 6만8500원으로 상승률은 25.69%를 기록했다. 코스피 상승률과 비슷한 수치다. 결국 코스피 전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은 외국인의 방향성에 달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장에서는반도체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외국인 유입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 원·달러 환율이 1310원선에서 등락하는 등 강달러 기조가 이어진 것도 ‘사자’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경우 외국인들은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3월 중순까지는 국내 증시에서 대량 매수 이후 일부 차익 실현 패턴을 이어왔지만 3월 말부터는 ‘사자’로 전환해 매집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될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증시 하방 경직성은 확보했다는 데에는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간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상단이 어느정도 열리느냐가 문제”라면서 “진짜 강세장 vs 가짜 강세장”을 둘러싼 전망 충돌은 시간이 지날수록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 연구원은 “그 과정에서 특정 시기 혹은 특정 재료를 소화함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 유동성 확대 영향 등으로 강한 반등세를 보인 코스피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다”면서도 “비중 확대 기회이자 순환매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

“주가조작 세력 엄단” 총력전 이복현 ‘조직개편 방향’ 주목

30일 ‘자본시장 조사역량 강화’
금감원 내 부서인원 확충 예정
‘SG사태 담당 대응팀’ 등 운영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선포, ‘총력전’을 위한 조직 정비 구상에 나섰다. 개편을 통해 금감원 내 조사 담당 부서에 인원을 확충하고, 사안별로 자원을 집중하는 ‘조사 부서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본지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오는 30일 ‘자본시장 조사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적정 체비를 갖추기 위한 구상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체 부서를 아우르는 정기적 성격은 아닌 만큼 개편안 발표는 현재 금융투자부서 업무를 지휘 중인 함용일 부원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조직 운영과 관련한 발표는 통상적으로 원장 또는 수석부원장이 맡지만, 이번 개편은 주가조작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만큼 함 부원장이 발표자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의 방향은 ‘조사 부서 확대’에 쩌힐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 내 조사 담당 부서 3곳(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에 인원을 추가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각 조사 부서 내에서도 서로 필요한 인원을

차출하는 ‘조사 부서내 유연화’ 방식이 도입 될 것으로 보인다.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로 촉발된 대대적인 조사를 위해선 금감원 내 시장 감시, 조사 담당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의 시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팀이 꾸려진다기보다 3개 조사부서가 각각 특수성과 전문분야 업무 영역을 가지고 구분돼 있는데, 작은 사안은 각 부서에서 다루고 긴급한 사안은 3개 부서 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구상 중인 것 같다”며 “정보수집을 위한 시장감시쪽 인원을 우선 늘리고 조사쪽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직개편을 위한 신규 추가 채용은 불가능한 만큼 조사부서 외 다른 부서에서 인원이 차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례적인 ‘선택과 집중’이긴 하나 그만큼 불공정거래 세력을 일망타진하겠다는 이복현 원장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이다. 조사부서의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선 20~30여명의 충원 인력이 필요할 거란 예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앞서 우선 특별조사국에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담당 대응팀을 만들어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다. 해당 팀에는 다른 조사국의 인원이 지원을 나간 상태다. 아울러 자산운용검사국 내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이 설치됐다. SG증권발 사태 당시 라덕연 대표가 자금을 끌어모으는 창구로 투자자문사를 활용했던 만큼 관련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박민규 기자 pmk8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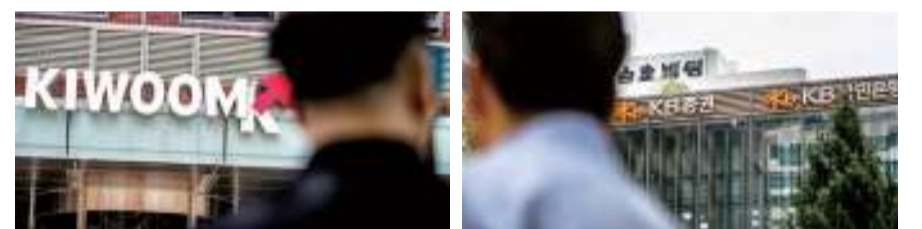


檢 ‘SG發 주가폭락’ 키움·KB증권 압수수색

이복현 “불공정거래 척결” 밝히자
사태 한달 만에 CFD 자료 확보 나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가 터진 지 한달이 넘었지만, 여의도 증권가는 여전히 흥흥한 분위기가 감돈다. 검찰이 SG 사건의 중심인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이날 키움증권과 KB증권 압수수색에 나서자 증권업계 파장은 확산하고 있다. 전날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를 주도한 ‘시장 교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부장검사)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SG사태로 폭락한 종목들의 차액결제(CFD)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을 제공하는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뉴스스

로 전해졌다. 전날 4대 기관장과 검찰이 한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양석조 남부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범죄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한다”며 “골든타임내에 금융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당 사건은 실제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채, 검찰청 캐비닛에 고스란히 쌓이거나 무죄가 선고되어 면죄부만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키움증권을 비롯해 CFD 관련 증권사들을 상대로 검

사에 나선 바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주가조작 사건 한 달 만에 수사에 들어간 데 대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자료가 안 남아있는 것 아니냐”며 “CFD거래 잔액 기준으로 보면 교보증권이 1위인데 키움증권 다음으로 KB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점이 의아하다. 증권사 전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생각돼 내부적으로도 조심하고 있다”고 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IPO 시장 휩쓴 삼성證 ‘공모액 1위’ 기염

KB·NH투자증권 ‘평가’ 체면 구겨

삼성증권이 기업공개(IPO) 시장을 휩쓸며 평가 반열에 올랐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 IPO 공모금액을 분석해본 결과 삼성증권이 2125억 원(리츠포함·공동주관사 배분)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투자증권(1930억 원)과 미래에셋(1796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건수로는 삼성증권이 5건, 미래에셋이 8건, 한국투자증권이 6건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어’는 없었으나 삼성증권의 경우 954억 원에 달하는 기기비스를 맡아 상반기 1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은 대부분 500억 원 이하의 소형주 위주의 IPO를 이어갔다.

특히 삼성증권은 1분기 세전이익 3470억 원, 당기순이익 2526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형 증권사 순이익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1분기 실적엔 삼성

FN리츠, 지아이이노베이션의 IPO와 롯데케미칼 유상증자 등을 주관해 약 450억 원 수수료 수익도 반영됐다.

반면, 지난해 역대급 공모주인 LG에너지솔루션 대표 주관을 맡았던 KB증권은 IPO시장에서 부진한 모습이다.

NH투자증권도 올해 오아시스, 컬리, 케이뱅크 등이 줄줄이 상장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NH스펙28호(68억 원)와 지아이이노베이션(104억 원) 등을 합해 200억 원이 안되는 수준의 공모 금액을 기록하면서 전통 주식발행시장(ECM) 평가 체면을 구겼다. 다만, KB증권은 LG CNS, 두산로보틱스, LS머티리얼즈 등 대형 IPO로 반등을 노리고 있다. 또한 에코아이 등 ESG관련 종목 첫 상장준비 중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공모금액 약 5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하반기 IPO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간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 맡았다. 박상인 기자 si2020@

KB증권+위밋파트너스 토큰증권 사업 업무협약

KB증권은 ‘신재생에너지 자산 활용 토큰 증권 사업’ 협력을 위해 위밋파트너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KB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밋파트너스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자산 기반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플랫폼 개발 사업 추진, 토큰 증권 사업화에 대한 신탁 및 계좌관리기관 서비스 제공, 토큰 증권 사업 전반에 대한 협업 기회 발굴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B증권 하우성 전무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의 강점을 살려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STO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KB증권이 가지고 있는 STO 사업 노하우와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소울에너지의 역량을 합쳐서 개인이 신재생에너지 자산에 손쉽게 투자하는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증권은 지난해 증권형 토큰(STO)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과 TF팀을 구성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

〈8세대 디엠티〉

쏘나타의 반란... 터보 엔진·8단 미션 **스포츠 세단**으로



쏘나타 디엠티는 8세대(DN8) 모델의 페이스리프트다. 다만 엔진 라인업과 디자인을 확연하게 바꾸면서 쏘나타의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했다. 신형 그랜저가 고급차로 회귀한 반면, 쏘나타는 스포츠 세단을 지향하고 나섰다.

사진제공 현대차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언제부터인가 중형세단 쏘나타와 준대형 그랜저의 차이가 크지 않게 됐다. 같은 플랫폼을 쓰는 데다 생산도 아산공장에서 혼류로 뽑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쏘나타가 엔진 배기량을 2000cc에 묶어놓은 반면, 그랜저가 3000cc급 엔진으로 차이를 둔 게 차이였다. 엔진출력과 편의장비를 제외하면 기본적인 운동성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형 세단 쏘나타 역시 준대형 세단 그랜저 못지않은 상품성을 갖추면서 국내는 물론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스텔라의 고급버전으로 출발한 쏘나타-두 모델의 태생을 따져보면 쏘나타와 그랜저는 좀처럼 좁혀질 수 없는 차였다.

쏘나타는 준중형차 스텔라의 최고급 버전으로 출발했다. 엔진 배기량이 1400~1600cc였던 스텔라에 과감하게 2000cc 엔진을 얹으며 출발했다. 차 곳곳에 크롬 장식도 마음껏 덧댔다.

다만 스텔라와 똑같은 디자인을 갖고서 고급차를 지향하다 보니 시장 반응이 두려웠다. 당장에 이름이라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현대차는 결국 스텔라 최고급 버전에 '쏘나타'라는 이름을 얹었다. 현대차 쏘나타의 시작이었다.

준중형 스텔라 고급형으로 출발 그랜저에 밀리고 아반떼에 쫓겨 단종설 돌만큼 입지 크게 줄어

8세대, 엔진·외관 확연하게 바뀌 1.6 모델 가속 경쾌... 180 마력 2.5터보 엔진 쏘나타 새 이정표

이와 달리 그랜저는 출발부터 고급차를 표방했다. 1980년대, 고급차 노후자가 모자랐던 현대차는 일본 미쓰비시와 공동개발로 그랜저를 선보였다. 1세대 그랜저는 다양한 '국내 최초' 타이틀을 틀어쥐면서 단박에 현대차의 '플래그십'으로 등극했다.

이후 현대차와 미쓰비시는 3세대 그랜저 XG까지 공동개발을 이어왔다. 동맹은 거기까지였다. 미쓰비시의 기술력을 추월한 현대차는 이때부터 자체적으로 그랜저를 개발했다. 쏘나타와 그랜저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NF쏘나타와 그랜저TG부터 경계 무너져=2004년 5세대 NF쏘나타가 등장할 무렵부터 쏘나타와 그랜저의 뚜렷한 경계선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다.

NF쏘나타부터 현대차의 품질과 내구성이 글로벌 수준에 올랐다. 이보다 1년 뒤 등장한 그랜저TG 역시 모자람이 없었



쏘나타 디엠티 1.6T와 2.5T 주요제원

	1.6 터보	2.5 터보
엔진	직렬 4기통	직렬 4기통
배기량	1598cc	2497cc
최고출력	180마력	290마력
최대토크	27.0kg·m	43.0kg·m
변속기	자동 8단	8단 DCT(습식)
공차중량	1510kg	1610kg
복합연비	13.5km	11.1km
기본 가격	3759만원	3961만원

다.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지 못했으나 한국에서는 조금씩 쏘나타의 영역을 넘보기 시작했다.

이후 세대를 반복하면서 차 가격이 좁혀졌다. 차의 성능과 편의장비도 큰 차이가 없었다. 배기량을 키운 고급 쏘나타가 등장하는 한편, 배기량을 2.4까지 낮춘 보급형 그랜저도 등장했다. 급기야 시장에서 두 모델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뻘한 결과지만 하나의 시장에서 윗급 고급차(그랜저)가 몸집을 낮추면 자연스레 쏘나타가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여기에 준중형차 아반떼가 상품성을 크게 키우면서 쏘나타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쏘나타의 단종설이나 돌만큼, 쏘나타 아니 중형 세단의 입지도 크게 줄었다.

◇그랜저 다시 고급차로, 쏘나타는 스포츠 세단으로=본격적인 반격은 쏘나타 디엠티에서 시작했다. 8세대 부분변경 모

델이지만 디자인을 비롯해 엔진 라인업 등을 확연하게 바꿨다.

무엇보다 윗급 모델과의 성격을 뒤바꾼 게 가장 큰 특징. 7세대 신형 그랜저는 그 옛날 1세대 그랜저의 각진 디자인을 되살리며 고급화를 추구했다.

반면 쏘나타는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 그랜저와 전혀 다른 방향성을 확립했다. 같은 플랫폼을 쓰면서 같은 공장에서 뽑아내는 차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그랜저가 고급차로 방향을 전환한 반면, 쏘나타는 스포츠 세단으로 방향성을 정립한 셈이다.

◇쏘나타 디엠티 1.6 터보와 2.5 터보 타보니=직렬 4기통 1.6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180마력(5500rpm), 최대토크는 27.0kg·m(1500~4500rpm)를 낸다. 순발력만 따져보면 V6 2.7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맞먹는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1500rpm부

터 최대토크가 쏟아져 나오는 덕에, 6단에서 8단으로 변속기를 바꾼 덕에 초기 가속이 경쾌하다. 1.5톤의 중형차를 가볍게 내몰기 충분한 힘이다.

쏘나타 디엠티는 'N라인'을 기준으로 68만 원을 추가하면 2.0 엔진 대신 1.6 터보 엔진을 얹어준다. 2.0 자연흡기 엔진을 고를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1.6 터보 엔진의 장점은 뚜렷하다.

2.5 터보는 쏘나타 디엠티를 대표하는 상징적 모델이다. 나아가 쏘나타의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낸다.

같은 엔진을 얹은 기아 스타이어가 최고출력 304마력을 냈던 것과 달리, 쏘나타 디엠티는 출력을 290마력에 묶었다.

다만 실제 주행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뒷바퀴굴림 스타이어의 초기 출력 손실이 더 큰 편. 쏘나타 디엠티 2.5 터보의 초기 가속이 오히려 경쾌하고 중속 이후부터 두 모델의 파괴력은 큰 차이가 없다.

결론적으로 1.6 터보와 2.5 터보는 전혀 다른 차로 봐야 한다. 1.6 터보는 다운사이징 엔진을 앞세워 2.0 자연흡기 모델을 대체할 적절한 대안이다. 2.5 터보는 향후 쏘나타가 나아갈 방향성을 뚜렷하게 담고 있다.

최고출력이 300마력에 육박하는 쏘나타는 이제 '스포츠 세단'으로 봐야 한다. 디엠티의 날카로운 디자인 역시 이런 방향성을 대변한다. 김준형 기자 junior@

40년 달린 '캠리'마저... 전기차·SUV에 밀려 내수판매 스톱

일본도 중형세단 판매 내리막길 신모델에 캠리 차명 사용 가능성



국내 중형차 판매가 올해 1분기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처럼 중형 세단의 몰락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경차, 나아가 박스(Box)카 형태의 소형 미니밴이 인기를 끌다 보니 중형 세단은 설 자리를 잃었다.

지난 3월,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토요타, 캠리(Camry) 내수판매 중단'을 보도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전기차와 SUV로 이동하

는 만큼, 일본에서도 내연기관 중형 세단의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캠리의 일본 판매는 고작 8933대에 머물렀다. 일본에서 연간 450만 대의 신차가 팔리는 것을 생각하면 극심한 부진이다.

같은 기간 토요타의 소형 해치백 '야리스'는 무려 19만1000대나 팔렸다. 1대당 판매 마진은 캠리가 높았으나 야리스 판매의 5% 수준에 머물면서 캠리는 꾸준히 '존재의 당위성'을 위협받았다.

캠리의 일본 판매중단은 여러 의미를 지닌다. 1979년 셀리카 캠리로 첫선을 보인 이후 10세대를 지켜오면서 '토요타-캠리'라는 등식을 완성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토요타 미국시장 성공의 자양분이기도 했다.

토요타 캠리의 자국판매 중단과 관련해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는 다양한 시각을 내놓고 있다. 먼저 자국에서 팔리

지 않는 차, 나아가 팔리지 않는 등급은 '지속가능성이 작다'는 게 중론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캠리 부활'에 대한 관측도 나온다. 40년 넘는 역사를 지켜온, 토요타에게 상징적인 모델인 만큼 향후 '캠리'라는 이름의 또 다른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SUV 또는 크로스오버형 친환경차를 개발하고 이차에 '캠리'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특정 차종(캠리)의 판매 중단보다 특정 세그먼트(중형 세단)의 판매 중단을 더 크게 봐야 한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1990년대, 미국 빅3 가운데 하나였던 포드는 그냥 놔둬도 불타나게 팔렸던 준대형 세단 '토러스(Taurus)'의 성공에 심취했다. 그리고선 자사의 엘리트급 연구개발진을 모조리 SUV 연구개발에 투입했다.

결국, 토요타와 혼다·닛산이 이 빈틈을 노렸다. 이들은 품질을 앞세워 미국 중형 세단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포드가 뒤늦게 토러스 후속모델 개발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했지만 때는 너무 늦어버렸다. 미국 차가 일본차에게 안방을 내주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김준형 기자 junior@

계획에 없던
질병, 사고에도
**당신을
지켜주는
현대해상**



당신 인생에 꼭 필요한 플랜

<2028년>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 경쟁... 8조 시장 잡기 '혈안'

에릭스젠 '염증·섬유화 억제제' 이르면 올해 말 韓·美 임상2상 유유제약 항염증제 'YP-P10' 디쿠아포솔과 유사 효능 보여 HLB테라퓨틱스, 임상3상 진행

기업	에릭스젠	유유제약
물질명	AVI-4015	YP-P10
개발 현황	미국 임상 2상 준비	미국 임상 2상 진행
기업	HLB테라퓨틱스	한올바이오파마
물질명	RGN-259	HL036
개발 현황	미국 임상 3상 재도전 예정	미국 임상 3상 재도전 예정



K바이오가 글로벌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고령화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등 다양한 요인에 관련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주도권 잡기 노력이 활발하다.

24일 시장조사기관 IMARC에 따르면 글로벌 안구건조증 시장 규모는 2022년 45억 달러(약 6조 원)를 기록했고, 2028년에는 63억 달러(약 8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엘라간 '레스타시스'와 노바티스 '자이드라'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나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갈증은 여전하다.

디엑스앤브이엑스(DXVX)가 최근 인수한 수를 결정한 바이오기업 에릭스젠은 안구 상피세포의 막단백질에 존재하는 DDR1에 결합해 염증반응과 섬유화를 억제하는 'AVI-4015'를 개발하고 있다. 염증 조절 인자와 염증을 세포의 침윤 억제를 통한 근원적 치료제를 목표로 한다. AVI-4015는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대성모병원에서 진행한 임상 1상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했다. 추가 독성 테스트를 마치고 이르면 올해 말

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에릭스젠 관계자는 "실제로 안구건조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안구 표면 술잔 세포(goblet cells)의 손상이 억제된 점 을 확인했다"며 "신규 표적인 DDR1을 타깃하므로 다른 치료제와 병용 투여도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유유제약은 지난달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 시력안과학회(ARVO)에서 'YP-P10'의 항염증 작용기전과 전임

상 결과를 내놨다. 미국에서 진행된 임상 2상 결과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유유제약에 따르면 YP-P10의 항염증 작용 기전은 안구건조증 생체 내(in vitro) 모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Th2 및 Th17 세포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전임상 시험에서는 경쟁 성분인 리피데그라스트 대비 12%, 싸이클로스포린 대비 7%, 히알루론산 대비 9% 우수한 효능을 보였으며, 디쿠아포솔과 유사한 효능을 나타냈다.

HLB테라퓨틱스는 미국 자회사 리젠트리를 통해 'RGN-259'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FDA에 네 번째 임상 3상(ARISE-4)을 위한 프로토콜 특별평가제도(SPA)를 신청했다. RGN-259는 퇴행성각막희귀질환인 신경영양성각막염 치료제로도 개발되고 있다.

일반적인 의약품의 임상 3상 성공 확률은 약 60%이지만,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성공 확률은 20.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치료제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증상(Symptom)과 의사가 판단하는 객관적 징후(Sign) 지표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증상과 징후 사이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임상 대상자의 변수 통제가 어려워 개발에 난항을 겪는다.

한올바이오파마는 'HL036'의 미국 3상 시험(VELOS-3)에서 1차 평가지표 달성에 실패했다. 2020년 허부각막손상지표(ICSS)와 안구불편감(ODS)을 1차 평가지표로 설정한 임상 3상에서 위약 대비 개선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각각 중앙부 효과(CCSS)와 안구건조감(EDS)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두 번째 고배를 마셨다. 다만 2차 평가지표 중 하나인 셔머테스트(Schirmer test)에서 위약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이에 연내 추가 개발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euna@

“프리미엄 뷰티·잡화도 로켓배송”...쿠팡 로켓럭셔리 출사표

화장품·의류·신발·지갑 소매업 직매입 제품 로켓배송으로 연결 짝퉁방지·연간 영업흑자 '두토끼'

국내 이커머스업계 공룡이 된 쿠팡이 프리미엄 잡화·뷰티 시장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잡화·뷰티 제품은 공산품, 식료품보다 부피는 작지만, 객단가가 높아 수익성을 올리기 쉽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로켓럭셔리' 상표를 출원했다. 상표가 적용되는 지정상품을 살펴보면 화장품 소

매업, 의류 소매업, 신발 소매업, 지갑 소매업 등 잡화와 뷰티에 집중됐다. 프리미엄 잡화, 뷰티 등의 제품을 직매입해 소비자가 주문 후 다음날 배송해주는 로켓배송에 나서겠다는 계산이다.

그간 쿠팡은 프리미엄 브랜드 C.에비뉴를 통해 프리미엄 뷰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파악해왔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C.에비뉴 럭셔리 뷰티 페스타'가 대표적이다. 올해 4월에도 '럭셔리 뷰티 페스타'를 열었는데 당시 쿠팡은 설화수, 에스티로더, 헤라, 시세이도, 맥, 바비브라운 등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프리미엄 제품을 직매입해 로켓배송으로

판매했다.

쿠팡이 프리미엄 잡화, 뷰티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 이들 제품이 공산품, 식료품보다 부피는 작지만, 객단가가 높고 재고 관리도 수월해 수익성 측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쿨리에 따르면 뷰티컬리의 평균 객단가는 기존 마켓컬리의 3배 수준이다. 뷰티컬리는 프리미엄 뷰티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올해 연간 흑자를 목표로 하는 쿠팡로서는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이다. 쿠팡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7조3990억 원(58억53만 달러·분기 환율 1275.58원)을 기록하며 사

상 최대 분기 매출액을 썼다. 영업이익은 1362억 원(1억677만 달러)을 달성해 3분기 연속 영업흑자를 이어갔다.

게다가 쿠팡이 직매입을 내세우는 만큼 프리미엄 잡화, 뷰티 제품에 늘 따라붙던 가품 문제까지 불식시킬 수 있어 오픈마켓에서 프리미엄 잡화, 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수요를 끌어올 수도 있다. 통신 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은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이 없어 가품 문제는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발생해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특허청

에 적발·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867만 점에 달했다. 품목별로 화장품류(50만 8634점)가 의류(75만 2412점) 다음으로 최근 6년 간 가장 많은 위조상품 품목에 올랐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뷰티 제품은 식품, 공산품보다 부피가 작아 배송 효율이 높고, 가격이 대체로 고가여서 객단가가 월등히 높은 만큼 수익성 개선에 효과적”이라면서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여러 이커머스 업체에서 강화하고 있는 카테고리”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고물가 속 '핫템' 된 냉식품... 편의점, 가성비 먹거리 대전

고물가에 편의점의 냉장·냉동식품이 인기다. 편의점에서 장을 보거나 끼니를 해결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편의점 업계 내 가성비 먹거리 상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CU가 지난달 출시한 PB 상품 '피자득템'이 5월 냉동 간편식 전체 매출 1위에 올랐다. CU 내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현재 CU가 판매하는 냉동 간편식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 운영 기간이 약 5.9년으로, 인지도가 높은 상품들 사이에서 출시한 지 불과 한 달짜리 신상품이 이변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CU는 피자득템의 인기 요인이 높은 가성비에 있는 것으로 본다. 2900원이라는 가격으로 혼자 즐기기에 적당하고 완성도가 높아서다.

피자득템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성비 피자로 불리며 간식, 야식 추천 상품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실제로 이 상품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전체 매출의 41.1%가 판매돼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했다.

CU는 PB 득템시리즈가 냉동 상품에서도 성과를 보이면서 최근 두 번째 냉동 상품인 '김치볶음밥득템'을 선보였다.

CU는 또 올해 냉장 두부, 냉장 닭가슴살, 냉동 순살 치킨 등으로 득템시리즈의 라인업을 확대하며 상품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CU, 2900원 '피자득템' 매출 1위 GS25, 4900원 'ㅋㅋ만두' 업고 냉동간편식 매출 1년새 541% 쑈

작년 1월 푸드 미디어 기업 쿠팡을 인수한 GS리테일도 편의점 GS25를 통해 다양한 냉장·냉동 간편식(HMR)을 선보이고 있다. GS25의 냉동 간편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540.5% 급성장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80.4% 신장하고 있어서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배달 음식과 배달비 금액이 크게 오르고 있고,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냉동 상품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성비 높은 냉동 특화상품 출시에 집중하고 있다.

GS25는 1월 냉동식품 중 만두 카테고리 수요가 가장 높다는 점을 겨냥해 'ㅋㅋ만두'를 출시했다. 돼지고기 함량은 27% 높으면서도 가격은 4900원으로 책정해 출시 후 한 달간 냉동만두 카테고리에서 전통의 강자들을 꺾고 매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외식 및 배달 상품으로 인기가 많은 피자를 냉동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빠피자'를 출시했다. 1인이 즐기기에 적합한 7인치 사이즈의 피자 2판이 들어가 있으며 가격은 6500원으로 책정했다. GS25는 GS리테일과 쿠팡이 가진 상품 경쟁력과 협업 시너지를 통해 앞으로도 차별화된 냉동 특화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한섬 '성수동서 스위스 분위기 느껴요' 한섬백화점그룹 한섬은 여성복 브랜드 래트의 여름 콜렉션 출시를 기념해 29일까지 서울시 성수동 퓨처소사이어티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팝업스토어는 스위스 남부 휴양 도시 '아스콘나'를 콘셉트로 했다. 방문 고객에게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김다희 작가와 공동 기획한 드로잉 스티커 등을 제공하며 래트 새머백, 젤라또 증정 이벤트도 개최한다. 사진제공 한섬백화점그룹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FDA 품목허가 얻었다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바이오시밀라 'CT-P17' (브랜드명 유플라이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3일(현지시간)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유플라이마는 류마티스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건선 등 휴미라(성

분 아달리무맙)가 보유한 주요 적응증들에 대해 7월부터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해져 미국에서 휴미라(바이오시밀라)고농도 제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휴미라는 지난해 기준 약 212억3700만 달러(약 27조608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만 글로벌 매출의 87% 이상인 약 186억1900만 달러(약 24조204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서울시 작년 기후예산 4.6조... “기후예산서 지침 필요”

서울연구원 보고서

지난해 서울시의 기후예산 규모가 4조 5610억원으로 총예산의 9.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예산편성부터 모든 실·국·본부에서 기후예산제를 시행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교한 기후예산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기후예산제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행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상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일례로 전기차 보급, 녹지 확충 등은 ‘감축사업’으로 분류해 예산 편성에 우선

온실가스 감축 예상 사업 늘리고 배출 예상 사업은 규모 축소 전기차·녹지 확충 등 우선 편성 감축·배출·혼합 항목 분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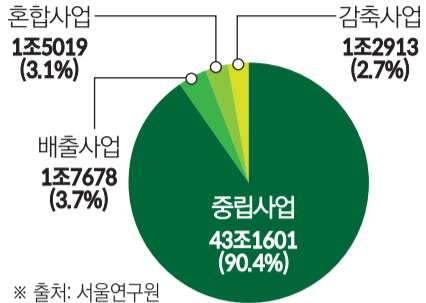
반영하고, 연료 지원 등 ‘배출사업’은 저감방안을 포함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식이다.

연구원은 시의 지난해 총예산 47조 7211억 원 중 기후 관련 예산은 약 4조 56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시의 4079개 세부사업 중 기후 관련 사업은 총 597개로 나타났다. 기후 예산 사업 중 감축 사업은 274개 (6.7%), 배출 사업은 219개 (5.4%), 혼합 사업은 104개 (2.5%)였다. 기후예산

서울시 기후 관련 예산규모

(단위: 억원, 2022년 기준)



※ 출처: 서울연구원

과 관련없는 중립사업은 3482개 (85.4%)였다.

세부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 47조 7211억 원 중 기후 관련 예산은 총 4조 5610억 원 (9.6%)으로 나타났다. 감축 사업 예산은 1조 2913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7%, 배출사업 예산은 1조 7678억 원 (3.7%), 혼합사업은 약 1조 5019억 원 (3.1%)이다.

연구원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균형발전본부 순으로 기후 관련 사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대부분이며, 안전총괄실은 배출사업, 균형발전본부는 배출사업과 혼합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시가 지난해 기후예산서 작성을 통해 112만 30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봤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기 승용차를 70만대 보급한 것과 같은 수치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공인한 바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기후예산제’ 전면 도입, 시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ESG 지표 반영 강화,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확대 등을 통해서다.

이에 올해부터 시는 기후예산제를 시정 전 분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매년 시

행하는 26개 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는 ESG 관련 지표 반영도 진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시가 기후예산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교한 예산분류와 함께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연구원은 “사업에 따라 감축·배출·혼합 예산 항목으로 분류하며, 이 과정에서 기후예산 분류 의사결정 나무 구조를 활용하면 된다”라며 “특히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초기에 제3의 기관에서 1차 분류를 수행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예산대상 사업을 분류하고, 분류 방식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에 따른 기후 영향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빈 기자 chaebi@



청계천 폭우대비 구조 훈련 24일 서울 청계천 오간수교 부근에서 열린 청계천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훈련에서 훈련참가자들이 불어난 물에 시민이 휩쓸려 온 상황을 가정해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대학 감사’ 손질 범죄 체크리스트 만든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고발기준 마련 탈규제·자율성 확대 등 개선키로

교육부가 행정감사 체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감사 운영 관련 지침을 개선해 구체적이고 보다 엄격한 고발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2일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했다.

교육부는 먼저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 기준 운영 지침’을 바꾼다. 감사처분 이행 관리 대안으로는 범죄 구성요건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업무에는 우재훈 법무정책부좌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37·연수원 41기)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다고 ‘사료’ 되면 고발해야 하기 때문에 고발건수 및 고발 수사의뢰가 상대적으로 많아 업무적 부담이 많았는데, 용역 연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엄격한 교육기관들의 고발 수사의뢰 기준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

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교육부 행정감사 처분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현황을 분석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분석한 후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감사 개선방향은 탈규제, 지원 우선, 자율성 확대 등으로 잡았다. 교육부는 미국·영국 등 교육선진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활동도 적극 살펴보고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과업지시서에서 “해외 영미권·일본 등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체계인 감사대상, 방식, 감사처분형태, 처분의 관리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감사 체계와 관련 피감기관 특성에 따른 적절한 행정감사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행정감사 가운데 교육부 자체감사 유형으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사전컨설팅감사 등이 있다. 교육부 자체감사 대상으로는 각 시도교육청, 국립립대학,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 공공기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등이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현역 의원 첫 영장 청구 선거운동원에 금품 살포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62·사진 왼쪽)·이성만(61·오른쪽) 무소속 의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건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강래구(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이은 두 번째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그해 4월 말에는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고,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의심받는다.

이 의원도 같은 해 3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4월 윤 의원의 지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즈음 송 대표 후보 캠프에서 현역 의원과 캠프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수십

명에게 돈 봉투 9400만 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이들은 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국회는 임시회가 진행 중이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캠프에서 지역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 씨는 송영길 후보자 캠프 콜센터를 운영도 담당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송영길 캠프에서 서울 상황실장을 지낸 이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선캠프 관련 추가 금품 등 제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통해 전당대회에서 오간 9400만 원 중 지역 상황실장 금품수수에 대한 일부를 특정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abc123@

감사원·교육부, 국립대·사립대 합동감사

정부재정지원 사업 점검

감사원과 교육부가 20여 개 국립대와 사립대를 상대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집행 관련 합동감사에 나선다.

24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감사원과 교육부는 이달 30일부터 국립대 8곳과 사립대 12곳을 대상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집행 점검 등 합동감사를 실시한다.

관련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두뇌한국 21사업(BK21)을 포함해 지자체·대학

협력기관 지역혁신사업(RIS),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이 있다.

교육부는 합동감사에 감사인력 7명 내외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가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정부재정사업비용 등을 조사하면서 특정업체 담합 비리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 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대전 도심융합특구 수혜... 교육·편의시설 최적

현대건설은 대전역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중앙로역에서 KTX·SRT 경부선이 있는 대전역은 한 정거장으로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사업지 인근에는 충청권 광역철도 신설 역인 중촌역이 예정돼 있으며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확정 시 신탄진~청구공항까지 연결 가능해 교통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지정된 선화 구역과 대전역세권 구역이 인접해 지역 활성화에 따른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 단지는 최상의 교육환경과 편의시설도 강점으로 주변에 선화초등학교와 충남여중·고, 대성중·고, 보문중·고 등 명문학군이 있고 둔산동 학원가도 가깝다.



또 국내 정상급 VIP 컨시어지 서비스기업인 '돕다'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쓰레기배출을 돕는 '쓰레기배출대행 서비스', 컨시어지가 아이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키즈케어 서비스' 등이다. 다양한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는 지하 5층~지상 49층, 5개 동 전용면적 84~174㎡ 총 8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대우건설 인덕원 퍼스비엘

자연 친화·첨단 시스템... 곳곳에 주민 편의시설

대우건설이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일대에서 '인덕원 퍼스비엘'을 본격적으로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4층, 14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21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5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 △49㎡A 215가구 △49㎡B 99가구 △59㎡A 90가구 △59㎡B 144가구 △74㎡ 12가구 △84㎡ 26가구다.

단지는 다양한 테마의 조경을 갖춘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상쾌한 개방감을 불어넣는 '그랜드비스타'를 비롯해 수목이 어우러진 '에잇센셀가든'이 조성될 계획이다. 또 흐르는 물을 배경으로 돌 조형물이 어우러진 '돌과 물의 풍경'과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액션 그라운드' 등도 갖춰진다.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첨단 시스템도 적용한다. 조명제어, 난방제어, 원격검침, 엘리베이터 호출이 가능한 월패드를 비롯해 스마트폰을 통해 공동현관 자동문을 열 수 있는 원패스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100% 지하 주차장으로 설계했다.

타 단지와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입주 날 끼니를 챙기기 힘든 입주민들을 위해 웰컴밀(도시락)을 제공하며 입주청소에 필요한 청소 용품이나 인테리어에 필요한 공구 용품 등을 대여해 주는 홈키트 렌탈 서비스를 진행한다. 여기에 입주민이 아파트 가드닝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키즈&맘 클래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전본주택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일대에 있다.

부영그룹 파크뷰 부영

"동·호수 직접 선택"... 8년간 이사걱정 없이 거주

부영그룹이 전남 광양 목성지구 A1·2블록에 지은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민간임대아파트가 선착순 공급 중이다.

단지 규모로는 1단지가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84㎡ 724가구, 2단지가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 59㎡ 766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 중 1회차 임대 공급분은 1064가구(1단지 570가구/2단지 494가구)다.

이번 선착순 공급은 청약으로 당첨된 계약 세대를 제외하고 남은 가구에 한해 선착순으로 동 호수 지정이 가능하며 계약 절차가 끝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동 호수를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지는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돼 입주민들의 주거 부담도 덜어줄 전망이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으로 임대보증금이 보장된다.



단지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도보권에 광양북초교를 비롯해 광양중, 광양하이테크교가 있다. 광양여중, 광양고, 광양여고, 광양보건대, 순천대학교 등도 가깝다. 또 대형 쇼핑몰인 LFS퀘어 광양점, NC백화점과 광양농협로컬푸드직매장, 광양5일시장 등도 가까워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통 인프라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에 남해고속도로 광양IC가 있어 차량을 통해 전국 각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DL이앤씨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군산 新중심지 자리... 입지·가격·인프라 삼박자

DL이앤씨는 전북 군산시에서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다. 단지는 군산 내 신흥 주거지로 떠오른 디오션시티 인근에 들어선다.

군산 조촌동 일대에 형성된 '디오션시티'는 모두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로만 공급됐다. 또 롯데몰 군산점 등 다양한 교육, 문화시설이 들어서면서 군산 대표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앞으로 디오션시티내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 조성도 기대된다. 앞서 분양한 1277가구 규모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 1·2차' 단지와 함께 총 2000여 가구의 단일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단지는 분양 경쟁력도 갖췄다. 합리적인 분양가에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차 50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잔여계약금으로 계약금을 총 3차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단지 내 조경공간



에도 공을 들였다. 단지 전체를 공원처럼 조성해 넓고 여유로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중심에는 잔디마당과 수경시설이 있는 '드포엠피크'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속 휴게정원 '미스티포레',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이 밖에 모든 가구를 일조와 채광에 최적화된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84㎡형을 4개의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도 넓혔다.

HDC현대산업개발 DMC 가재울 아이파크

사통팔달 교통입지에 개발 호재까지 두루 갖춰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대문구에 조성하는 'DMC 가재울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주변에 다른 대단지들이 들어서 있어 기존에 깔린 인프라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가재울 뉴타운 내에서도 노른자 입지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및 경의중앙선·공항철도가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도 가깝다. 내부순환도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이용이 쉬워 상암 DMC·여의도·마곡지구 등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도 편리하다. 새철역에서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도 2028년 개통 예정이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가재울초를 비롯해 가재울중·가재울고 등이 도보권에 있다. 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 등 유명 대학교도 인근에 자리해 있다.

생활환경도 눈길을 끈다. 인근 가좌역의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비롯해 대형마트와, 연세대세브란스 병원 등도 가깝다. 수색역세권 일대에는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도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녹지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주위로 흥제천과 수변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가재울어린이공원, 가재울중앙공원 등도 도보권에 있다. 월드컵공원·하늘공원 등 나들이 명소도 가깝다.

각종 개발호재 역시 몰려있다. 마포구 내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가 2030년 준공 예정에 인근 수색역 일대에는 쇼핑·문화·비즈니스 공간을 조성하는 수색역세권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HL디앤아이한라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월명공원 품은 숲세권... 곳곳에 쇼핑·문화시설

HL디앤아이한라가 다음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들어서는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에 전용면적별로 △76㎡A 250가구 △76㎡B 54가구 △84㎡A 476가구 △84㎡B 77가구 △122㎡A 2가구 △122㎡B 3가구 △133㎡ 3가구 △134㎡ 9가구 등 총 874가구 규모다.

인근에 갖춰진 풍부한 인프라로 생활여건이 우수하다. 온더파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월명공원도 인접한 숲세권에 자리하고 있어 넓은 공원을 품은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현대백화점, 롯데아웃렛 등 상업시설은 물론 예술의전당, 종합운동장 등 문화시설도 가까워 이용하기 쉽다. 청주종합운동장, 청주시청, 충청북도청, 청주의료원 등 행정시설도 반경 3km 이내에 자리하고 있다. 봉정초, 봉명초, 봉명중, 봉명고 등과 학원들이 다수 있고, 한국폴리텍대, 충



북대, 청주대 등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단지 맞은편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있어 직주근접성을 갖췄고, 단지 앞 봉명로를 이용하면 청주역, 청주IC, 서청주IC, 청주공항, 터미널을 이용해 차로 오가기 편리하다. 신설 예정인 북청주역이 개통되면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 광역도시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본주택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6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GS건설 상무센트럴자이

스카이라운지서 무등산 조망... 영화관 갖춰

GS건설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일대에 들어서는 '상무센트럴자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상무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14개 동, 전용면적 84~247㎡ 총 9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438가구 △125㎡ 326가구 △150㎡ 54가구 △185㎡ 42가구 △205㎡ 30가구 △157~247㎡ T 13가구다. 157~247㎡ T 타입은 1·2층 복층으로 설계된 스튜디오 테라스하우스로 희소성을 자랑한다.

상무센트럴자이는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과 입주 서비스가 도입된다. 단지 최고층에 입주민 전용 스카이라운지가 마련돼 광주시가지와 상무지구 무등산의 경관을 파노라마뷰로 감상할 수 있다. 광주 최초로 입주민만을 위한 CGV 프리미엄 상영관도 마련된다. 프리미엄급 운동기가 배치된 피트니스센터와 실내스 크린골프연습장, 사우나 등도 예정돼 있다.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단지 내 도서관에서는 교보문고와 협약을 통해 엄선



된 서적을 큐레이션하고 SPC 그룹이 운영하는 카페테리아에서는 스페셜커피와 티를 즐길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도 마련된다.

상무센트럴자이는 광주시 교통·행정·금융·상업·문화 중심지인 상무지구에 들어서는 만큼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췄다.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광주지하철 1호선 운천역이 단지 정문에서 도보 거리고 인근에 2026년 개통 예정인 2호선 환승역인 상무역도 있다.

포스코이앤씨 더샵 신문그리니티

김해 신항주거지 인프라 풍성... 직주근접도

포스코이앤씨가 다음 달 경남 김해시 신문1도시 개발구역 A7-1블록에서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02㎡ 총 11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652가구 △102㎡ 494가구로, 희소성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김해시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도약하고 있는 신문1지구에 들어선다. 이곳은 총 2902가구가 조성되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인근 장유신문지구와 무계지구, 김해관광유통단지, 신문·무계 입주단지 등 주거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약 1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신도시급 규모의 신항주거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더샵 신문그리니티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단지에서 반경 1km 내 김해 최대 규모의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에는 김해롯데워터파크의 놀이시설과



롯데아울렛, 농협하나로클럽 등 쇼핑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향후 테마파크와 쇼핑몰, 콘도, 호텔 등이 들어서면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주근접 지역으로도 손색없다. 단지에서 차량 10분 거리에는 전기·전자, 메카트로닉스, 의료, 정밀기기업체 등이 입주해 있는 김해골드루트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신문1지구는 부산과 창원을 잇는 광역권 교통 요충지로서 역할을 한다.

동문건설 원주 동문 디 이스트

마트·병원 이용 편리... 녹지 많고 학교 인접

동문건설이 다음 달부터 강원 원주시 관설동에 들어서는 '원주 동문 디 이스트' 분양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11개 동, 총 873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80㎡ 144가구 △84㎡ 642가구 △115㎡ 87가구다.

원주 동문 디 이스트는 더블 생활권에 위치해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원주 도심권과 원주 혁신도시에 가까워 홈플러스, 원주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쇼핑센터는 물론 원주의료원 등 각종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앞 원주천 산책로부터 삼보공원, 두물 수변공원 등 녹지도 풍부하고 교육 시설로는 관설초, 단관초·중, 영서고 등이 인접해 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중앙고속도로와 19번 국도의 인근에 위치해 광역 교통망을 두루 갖추고 있다. 지난 2021년 개통한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원주역을 통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약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역에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이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관설 하이패스IC 설치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어 개통 시 원주 동부권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원주권역에 들어서는 신주거타운이 주목된다. 초혁신도시 반도체유보라마크브릿지와 힐스테이트 원주레스티지가 조성 중이다. 향후 디이스트를 포함해 약 5000여 가구 규모의 브랜드타운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삼성물산 래미안 라그란데

동대문 대단지·교통 우수... 숲테마 정원 눈길

삼성물산이 동대문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에 조성될 '래미안 라그란데'를 올 하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39개동, 총 3069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중 920가구만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2㎡ 45가구, △55㎡ 173가구, △59㎡ 379가구, △74㎡ 123가구, △84㎡ 182가구, △99㎡ 10가구, △114㎡ 8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들어설 이 단지는 브랜드 대단지인 데다 일대가 활발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신형 주거타운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여기에 편리한 교통망이 물려 있어 미래가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신이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1호선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C 노선까지 들어설 계획인 청량리역과도 가깝다. 북부·동부 간선도로와 맞닿아 있어서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쉽다.

단지 주변으로 각종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다. 경



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코스트코 상봉점, 이마트 목동점, 청량리 롯데백화점 등이 있고, 개발 중인 청량리역 일대 상권도 이용이 편리하다. 천장산·의릉과 가까운 숲세권 입지에 중랑천도 가깝다. 이문초, 석관중, 석관고, 경희중·고부터 한국외대, 경희대까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조경시설도 선보인다. 숲을 테마로 한 다양한 테마정원과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한화건설부문 포레나 평택화양

초등학교 맞닿아... 지구 최대규모 공원 조성

한화건설부문이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 조성하는 '포레나 평택화양'을 분양 중이다.

포레나 평택화양이 들어설 화양지구는 국내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 중 최대규모로 서평택 대표 중심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 단지는 화양지구 7-2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74~99㎡ 총 995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화양지구에서는 최초로 전용 84㎡ 초과 평형이 도입됐다.

포레나가 들어서는 7-2블록은 최중심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췄다. 먼저 초등학교 부지가 단지와 맞닿아 있고 화양지구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공원도 인접해 있다.

인근 서평택 권역에 여러 개발호재가 속도를 내고 있어 이 곳 미래가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가깝고 서해선은 2028년 KTX, 경부선과 연결되면 KTX를 타고 서울까지 환승 없이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약 30분대면 출퇴근할 수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도 호재로 꼽힌다. 3곳을 더 지어 총 6개 라인이 준공될 시 130만명 이상의 고용 유발효과, 55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여러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직주근접 가치도 높다.

단지는 다양한 테마의 조경을 갖춘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또 중도금 무이자와 1차 계약금 정액제 등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제일건설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삼성반도체 바로 옆... 산단 가까워 수요 탄탄

제일건설은 평택가재지구에서 '지제역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평택가재지구 공동2블록에 조성되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총 11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819가구 △84㎡B 162가구 △103㎡ 171가구로 이뤄져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이 일대에는 같은 브랜드 단지가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총 3701가구에 달하는 단일 브랜드타운을 형성해 신항주거타운으로서 입지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가재지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바로 옆에 위치한 데다 송탄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예정), 브레인시티(예정)를 잇는 반도체 벨트도 추진되고 있어 탄탄한 수요층에 뛰어난 직주근접성을 자랑한다.

단지 내외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된다. 지구 내에는 7개의 공원과 인근 산업 단지와 주거분리를



위한 공원 4개를 만들 예정이고, 여기에 안전한 통학 거리를 확보한 초교, 유치원도 계획돼 있다. 지구 주변으로는 홈플러스, CGV, 이마트,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가까워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평택에서는 최초로 종합의료시설 아주대병원이 들어서게 되면서 의료환경도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는 편리한 교통환경도 갖추고 있다. SRT와 1호선이 지나가는 지제역이 가까워 광역교통망이 뛰어나다.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 부문

- ①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 ②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 ③ 최적화 기술 1위 → 12,312,000가지 스펙 초격차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딱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제 우선 (본사 매장)
가격 영원 불변 정책



천명관, 부커상 불발됐지만... 韓문학 존재감 과시

19년 전 발표한 '고래' 최종후보 선정에 만족

천명관 작가의 '고래'가 영국 부커상의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에 실패했지만, 문학계 최고 영예로 손꼽히는 시상식의 최종후보(쇼트리스트) 6편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국 문학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19년 전인 2004년 출간한 소설이 뒤늦은 올해 1월 영국에서 번역됐음에도 곧장 최종후보에 올라섰다는 점이 무엇보다 고무적이다.

부커상은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스카이가든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불가리아작가 게오르기 고스포디노프의 소설 '타임 셸터' (Time Shelter)를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과거의 10년을 세세하게 재현해 주는 '과거 클리닉' 서비스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찾아들면서 벌어지는 문제적 상황을 묘사한 작품이다.

천명관 작가의 '고래'는 최종 수상작이 되지 못했지만, '타임 셸터'와 함께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 6개 작품에 들면서 한국 문학의 가치를 입증했다.

국내에서 그간 부커상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린 작가는 한강, 정보라 두 명뿐이었다. 한강 작가가 2016년 '채식주의자'로 한국 최초로 이 부문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2년 뒤 '흰'으로 다시한

부커상 측 "한국의 사회변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서사시" 분석 수상은 고스포디노프 '타임셸터'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자 고스포디노프.

번 지명되면서 역사를 썼다. 지난해 정보라 작가가 '저주토키'로 그 계보를 이었다.

한강, 정보라 작가와 달리 천명관 작가의 '고래'는 무려 19년 전 집필한 '구작'임에도 뒤늦은 올해 1월 영국에서 번역되면서 곧장 부커상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게 됐다. 번역은 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 구병모 작가의 '파괴' 등을 영어로 옮긴 김지영 번역가가 맡았다.

1900년대 즈음을 배경으로 하는 '고래'는 시골에 태어난 여인 금복의 삶을 역동적으로 묘사하는 작품이다. 생선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스카이가든에서 개최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시상식에 참석한 '고래'의 천명관(오른쪽) 작가와 김지영 번역가.

장수, 항구 노동자, 야쿠자 등을 만나며 사업수완을 발휘하는 금복은 벽돌공장을 세우고 영화관까지 지어 올리는 등 크게 성공하지만, 그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부커상이 '고래'를 "한국이 전 근대에서 후기근대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경험한 변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서사시"라고 정의한 이유다.

천 작가는 지난 20일 공개된 부커상과의 영상 인터뷰에서 "1980년대만 해도 한국 사회는 국민들의 투표권이 없는 군부독재였다. 나도 그때 군대 생활을 했다"면서 "민주화 과정을 통해 사회가 정상화되는 듯했지만, 일제강점기

부터 군부독재를 거치는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모순이 더 심화되는 모습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고래'가 출간된 후로 20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과 혐오가 훨씬 더 강력해졌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조장하는 세력도 있다"고도 비판적인 답을 내렸다. 다만 "그럼에도 한국인에게는 뜨거운 역동성이 있기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박꽃 기자 pgot@



최문섭(오른쪽) NH농협손보 대표가 복숭아 수확 내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NH농협손보

"영농철 일손 도우러 왔습니다" 이천에 뜬 NH농협손보 봉사단

NH농협손해보험 헤아림 봉사단은 경기 이천시 소재 자매마을인 도달미 마을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행사에는 최문섭 대표이사를 비롯한 헤아림 봉사단 20여명은 도달미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과수 적과작업, 고춧대 세우기, 모판 옮기기 등을 실시하며 영농철 바쁜 농가의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또한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발췌물세트 60개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대표는 "일손돕기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누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서울현충원 비석 닦고 태극기 꽂고 수협중앙회장·은행장 등 묘역 정화

Sh수협은행은 현충일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묘역 정화활동에 나섰다. 23일 노동진(사진 왼쪽) 수협중앙회장과 강신숙(오른쪽) 수협은행장을 비롯해 임직원과 가족 약 8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현충탑 참배와 분향을 시작으로 비석정화, 태극기 꽂기 등 묘역 돌봄 활동을 펼쳤다. 노 회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길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ry0403@ 사진제공 SH수협은행



아빠 '신선한' 엄마 '오신선'... 동원F&B 가상인간모델 기용

동원F&B가 프리미엄 유기농 브랜드 '덴마크'의 모델로 가족 콘셉트의 버추얼 휴먼(가상인간)을 발탁했다. 4인 가족의 구성원들을 버추얼 휴먼으로 기획해 브랜드 모델로 채택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24일 동원F&B에 따르면 버추얼 휴먼 가족의 이름은 '신선패밀리'다. 신선패밀리를 구성하고 있는 캐릭터는 각각 '신선한(아빠)', '오신선(엄마)', '신선희(딸)', '신선해(아들)'로 신선하고 건강한 '덴마크' 유제품을 다양하게 즐기는 세대별 모습을 가상으로 구현했다. 특히 각각 운동과 요리에 관심이 많은 캐릭터를 통해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유제품 활용법을 제안한다.

동원F&B는 SNS 상의 가상 세계관에 익숙하고 색다른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를 겨냥해 버추얼 휴먼을 모델로 발탁했다. 향후에는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콘텐츠와 팝업 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덴마크 세계관을 구축하고 MZ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peter@ 사진제공 동원F&B

진옥동 "ESG 계획보다 실행 중요" 함영주 "생물다양성 투자 확대"

신한금융·하나금융 CEO 나란히 유엔환경계획 FI 아태회의 참석

국내 금융지주최고경영자(CEO)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금융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여의도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금융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유엔환경계획은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민간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해 1992년 공식 산하 기관인 UNEP FI를 설립하고 회원사 및 지역별 전문가,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하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는 지역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있다.

진 회장은 "ESG는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지속가능 금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2008년부터 UNEP FI의 회원사로서 활동해왔다. 2021년에는 다양한 활동의 성과를 인정 받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글로벌 금융기관 CEO의 협의체인 '리더십

위원회' 멤버로 선정되는 등 지속가능금융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함 회장은 "올해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생물다양성 회계금융연합(PBAF)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면서 "금융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투자와 공동의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나금융은 2007년 UNEP FI에 가입하고 2018년에는 UNEP FI의 글로벌 30개 금융회사로 선발돼 파리기후변화협약과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UNEP FI 책임은행원칙 제정사업에 참여했다. 김법근 기자 nova@·손희정sonhj1220@



24일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이영(가운데 녹색 재킷)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수상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부 '무명의 수출용사' 간접수출기업 14곳 첫 시상

중소기업 수출유공 포상 시상식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 시상식'과 '제2차 민관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TF'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 추진하는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 국정과제와 관련한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수출지원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의 약 40%를 기여하고 있

으나, 대부분의 수출지원사업이 직접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를 알리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신설했다. 모집 결과 3:1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14개 기업이 포상기업으로 선정됐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인사

◆국도교통부 ◇국장급 승진 △항공안전정책관 유경수

◆통계청 ◇과장급 △통계정책과장 이민경 △혁신행정담당관 김현기

◆교육부 ◇인사교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서기관 이은선 △디지털인프라담당관실 기술서기관 김새별

부음

▲이경자 씨 별세, 박주만(전 이베이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씨 모친상 = 2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26일 오전 5시 30분, 02-3010-2000

▲왕경령 씨 별세, 왕육해(호유대표)·왕육성(진진 대표)·왕연생(신태창여행사 대표) 씨 모친상 = 24일 0시 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6일 오전 6시 20분, 02-2227-7590

자본시장 속으로



오 건 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부장

‘부채한도 상향’ 민주·공화 기싸움
인플레이션 압력에 고금리 유지할 듯
과도한 부채로 재정정책도 제약
경기부양 한계...성장동력 약화돼

미국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국가 부채의 상한을 설정해두고 있는데, 그 금액은 현재 31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와 코로나 사태 등을 거치면서 강한 경기 부양이 이어지면서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 지난 1월 이미 그 한도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한도에 근접한 것도 문제지만, 향후 지출도 여전히 큰 규모로 이어진다는 것 역시 이슈다.

부채가 커져버린 상황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금리 상승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미국의 국제 금리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향후 미국의 이자 부담을 더욱 크게 확대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TGA(Treasury General Account) 계좌에 일정 금액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TGA계좌의 자금마저 바닥을 보이면 실제 국가 부도, 즉 디폴트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언급했던 계좌의 자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그 날짜를 X

-데이트라고 하는데, 미국 재무장관인 엘런은 6월 첫째 주 정도로 압박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라는 국가가 돈이 없어서 실제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간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쟁 느낌이 있는데, 이들은 내년엔 있을 대선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부채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 위기를 뛰어넘는 거대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공화당이 빠른 합의에 나서줄 것으로 중용하고 있다.

반면에 공화당은 민주당의 재정 지출이 상당히 방만하며 이런 형태의 지출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뿐 아니라 부채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더욱 확대시킬 것임을 근거로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을 크게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 관련 항목의 재정 지출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갈등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를 선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국가 부도가 현실화됐을 때 금융 시장 충격은 쉽게 가늠이 되지 않기에 양당 간 원활한 합의를 통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다만 이렇게 합의가 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부채 한도가 상향되면 다시금 국제 발행을 통해 국가 부채를 늘리며 국가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당한 규모의 부채는 여전히 남는다.

거대한 국가 부채는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에 부담을 준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고 있기에 고금리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다 많은 이자 지출로 인해 그 부담이 더욱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국가 부채가 많으므로 향후에도 예산을 크게 늘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이자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 실제 국가 운영, 혹은 경기 부양, 복지 지출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의 제약 역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미국 경제는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리 인상 및 물가 상승 호

과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 경기 부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기에 중앙은행인 연준은 과거와 같은 공격적 금리 인하 등을 진행하기 어렵다. 통화정책이 어려울 때는 재정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재정 지출마저 제약 받는다면 과거와는 달리 경기둔화 시기에 이런 어려움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은 미국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 타결 시점이 중요하겠지만, 그 타결 이후에도 미국의 부채 문제는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 역시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중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CEO 칼럼



서 광 열
코드박스(ZUZU) 대표

‘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곳 많다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이 허용될 예정이다. 지난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자격을 갖춘 창업주는 주식 1주에 최대 10개까지의 결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주식 하나에는 의결권 하나’라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생긴 셈이다. 업계는 대체로 복수의결권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분보다 ‘투자계약’ 우선이 현실

창업주인 대표의 지분은 회사가 투자 받을 때마다 계속 희석된다. 회사를 설립할 때 대표 100% 지분으로 시작했어도 시리즈 C, D쯤 되면 지분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희석되거나 최대 주주가 아니게 되면 이제 절차를 거쳐 복수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가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복수의결권 실효성에 의문을 가

진 시각이 많다는 점이다. 스타트업을 창업했거나 임원으로 재직해 봤다면, 스타트업 거버넌스는 창업주가 보유한 지분과 무관하게 창업주와 투자자가 맺은 주주간 계약서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창업주는 보통 5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상법에 따라서는 경영 사항 대부분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주주간 계약서에 의해 투자자가 동의해야 임원의 선임, 투자 유치, 스톡옵션 부여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투자자가 소수 지분일 때도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있는 셈인데,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있겠느냐는 의심의 시선이 많다.

물론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창업자보다 지분이 적은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도 필요하다. 투자 계약은 사적 자치의 영역인 만큼 어느 한쪽을 약자나 강자로 규정하고 과도하게 계약 내용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동반매수청구권, 우선매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 각종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모든 경영 사항에 대해 사전동의권

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현재의 투자 계약 관행은 창업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과하게 침해하는 면이 있다고 본다.

창업·투자자 윈윈할 거버넌스 찾길

투자자 수가 늘어날수록 사전동의권이 투자자 스스로에게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창업자와 다수의 투자자가 IPO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투자한 투자자가 기업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IPO에 반대하면 창업자가 소송을 각오하고 IPO를 강행하기는 어렵다.

사전동의권 조항이 스타트업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남아 있으면서 스타트업 거버넌스 방식은 활발히 논의되지 못했다. 한 번이라도 투자받았다면 모든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니 창업자의 지분이나 의결권이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투자자가 무한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지금 지분이 중요한 순간은 상장 심사 정도인데, 한국거래소는 대표 지분이 많아 지배구조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상장 심사의 중요 요건으로 보고 있다. 이번엔 도입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

권 제도는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 상장 심사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 스타트업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2021년 9월 고등법원은 ‘주주간 계약을 했다더라도 사전동의권은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져 온 투자 관행에 제동이 걸리나 싶었지만 아직은 사전동의권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거버넌스에 큰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주주 평등이라는 상법의 대원칙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은 무효가 되거나 영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 사전동의권이 아니더라도 투자자가 이사 임명권 등을 이용해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회사의 성장에도 기여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창업자를 위한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는 시점인 만큼, 벤처 생태계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금아(琴兒) 피천득(皮千得) 명언
“결혼은 작은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거나긴 이야기이다.”

시인, 수필가다. ‘금아 시문선’ ‘산호와 진주’를 남긴 그의 시는 일체의 관념과 사상을 배격하고 아름다운 정조와 생활을 노래한 순수서정성으로 특징지어진다. 그의 수필은 서정적·명상적 수필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다. ‘수필’ ‘삶의 노래’ ‘인연’을 남긴 그는 오늘 생을 마감했다. 1910~2007.

☆ 고사성어 / 삼성오신(三省吾身)
날마다 세 번씩 자신을 반성한다는 말. 출전 논어(論語). 증자(曾子)가 한 말. “나는 날마다 세 번 내 몸을 살피니,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함에 충성스럽게 아니하였는가? 벗과 더불어 사귀되 믿음을 잃지는 않았던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히지 아니 하였는가[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與朋友交而不信乎傳不習乎?] 이니라.” 증자는 성실하게 남을 도와주었는가 하는 점, 친구에게 신의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 스승의 가르침을 게을리한 점이 없는지를 지적해 진실, 신의, 노력을 강조했다.

기자수첩



박민규 / 자본시장부

증시에 떠도는 “너 T야?”

F 유형의 간극에서 등장한 말이다. 가령, F가 공감이나 위로를 원하는데, T가 팩트를 근거로 한 직언으로 찬물을 끼얹을 때 “너 T야?”라는 말로 면박을 주는 식으로 쓰인다.

결국 “너 T야?”라는 말은 곧 ‘눈치 좀 챙겨라’ 내지 ‘눈치가 없다’라는 뜻이다. 더 나아가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거기에 탄지를 거느냐’로까지 해석된다고 하면 너무 T스러운 걸까. 증시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된다.

특정 테마주가 과도하게 올랐다면 우려를 표하는 말을 내놓으면 “왜 좋은 흐름에 굳이 초를 치려 하느냐”,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거냐”는 등 날카로운 말들이 쏟아진다.

공매도 이슈도 비슷한 맥락인 듯하다. 공매도 필요성이 언급되면 ‘눈치 좀 챙겨라’는 듯 비난이 이어진다. 세력과 결탁한 악인으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 힐난을 넘어서기도 한다. 혹자는 민감한 주제에 소신 발언했다가 신상에 위협을 느껴 방금복을 입고 다

니기도 한단다.

테마주 상승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과도한 기대감으로 고평가된 지점이 있을 수 있다. 공매도 역시 장단이 명백히 존재하는 매매 기법이다. 다만 현 상황들은 왠지 F들이 “너 T야?”라며 면박을 주는 것만 같다.

T나 F 한쪽만 존재해서는 바람직한 사회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은 상호보완적 관계다. 뜨거운 F에 이를 식혀주는 T가 있어야만 골디락스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너 T야?”라는 말에 T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까봐 우려가 된다고 하면 너무 T스러운 걸까. pmk8989@

☆ 시사상식 / 탑재금융(BaaS·Banking as a Service)

은행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연계·협업 사업 모델이다. 핀테크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술자, 앱 개발자 등 제삼자 사업자가 API를 구축하고 있는 은행 시스템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설계·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제삼자 사업자는 은행 API로 오픈뱅킹을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것이다. 즉 제삼자 사업자가 본인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휴대폰 중독시대, ‘반란’이 필요하다

깜빡이는 커서가 제자리를 맴돌 뿐 글은 쉽게 나아가질 못한다. 공직 때의 직장 사보 편집장 경험이 무색하기만 하다. 10년쯤 전에는 언론에 정기적으로 기고도 했다. 누구에게나 왕년은 있다지만, 경험이 더 쌓인 만큼 글이 편해지지 않는 건 씁쓸하다. 마음을 달래려고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다. 커서는 더 오래 깜빡인다.

‘도둑맞은 집중력(Stolen Focus)’의 저자인 영국의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는 휴대폰과 컴퓨터 없는 일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검증했다. 항복 선언까지는 불과 2주 걸렸다. 미국 10대들의 물입은 65초, 직장인은 3분에 불과하다니 오래 견디 셴일까. 휴대폰엔 폰을 집에 두고 떠났던 출장길의 아드함과 불안감을 떠올려보면 나도 마찬가지다.

예상하듯 진단은 집중력 저하, 파편화된 정보가 범람하는 디지털 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테크 기업의 정치경제학과 약탈적 마케팅은 보이지 않게 구축된 컨텍스트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개인차원을 넘는 사회적 유행병으로 단언하고 시급한 대응을 촉구한다. 책의 부제는 ‘집중력 위기의 시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이다.

휴대폰 중독의 부작용은 증가하는 피싱사기로 이어진다. 완벽하게 가장된 문자를 받으면 속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자와 카카오톡을 활용한 메신저피싱이 활개를 치는 이유다.

4월 어느 날, 잘 아는 중견기업 회장님에게 문자를 받았다. 캡처된 사진에는 내 카톡 화면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논현로

이 호 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사회적 고립 불안감에 더욱 집착 집중력 되찾으려면 ‘전쟁’ 벌일판 이웃 돌보는 파스한 ‘손길’ 회복을

중견기업 상근부회장 이호준입니다. 미국 출장 중이라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갑쪽갑다. 답신을 보냈다면 이내 피싱작업이 진행됐으리라. 지인들의 확인 전화가 쏟아졌다. 대부분 미국 출장이라고 물었다. ‘위장된 나’를 믿고 송금하려다가 ‘진짜 나’와 연락이 닿아 간신히 피해를 막은 경우도 있었다.

SNS와 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길고 복잡하게 바꿨다. 2단계 인증도 했다. 귀찮기만 하던 보안 절차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느꼈다. 삼사 일이 지나야야 상황은 겨우 진정됐다. 얼마나 조심성이 없으면 피싱을 당하느냐는 쪽이었는데, 겪어보니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졌다. 의도치 않게 ‘나’로 말미암아 타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스스로 조심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지난 5년간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7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메신저피싱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전체 건수의 89%를 차지하는데, 그중 95%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와 학습, 신뢰와 소통, 일과 여가의 모든 결핍

아들인 휴대폰의 호출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금융범죄의 창궐을 예방할 도리가 있을까.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른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고립에 대한 불안은 문자로든 SNS로든 어딘가와 누군가와 연결돼야 한다는 절망적인 필요를 낳았을 것이다. 만나서 대화하기보다 문자가 편해지는 아이러니는 더 서글프다. 식탁에 마주앉아 문자로 대화하는 가족의 이미지는 블랙코미디가 아닌 현실이다.

멀티태스킹이 창의력을 끌어올린다는 주장도 있다. 내 학창 시절에는 라디오를 켜고 공부하는 게 고작이었지만, 요새 아이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고, 문자로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즐긴다. 젊은 천재들이 AI를 만들어내고, 인터넷과 클라우드로 이른바 에브리싱을 연결했다. 편리한 시절이고, 되돌릴 이유는 없다. 다만 실제와 모상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초현실’적인 일상 속에서, 삶의 주도권을 붙들기 위한 조금의 자제와 집중은 보다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어 주리라 믿을 뿐이다. 물론 쉽지 않을 터다. 요한 하리는 ‘반란’,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했다.

‘핸드’는 ‘폰’만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높은 부모의 등을 굽어드리고, 동네 꼬마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은 파스하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며칠째 읽는 두꺼운 책의 페이지를 넘길 때 손은 마침내 조금 쉰다. 빙하기쯤이 지난 먼 미래, ‘핸드폰’을 쥘 사이보그종의 화석으로 발견되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 깜빡이던 커서가 경쾌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설

집시법 보완으로 민폐 집회 줄여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 등의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당정이 강경 대응에 나서려는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지난 16, 17일 1박 2일 노숙집회가 큰 물의를 빚고 여론 악화를 부른 까닭이다. 건설노조가 동원한 노조원들은 평일부터 도로를 막고 집회를 벌여 서울 광화문 도심 교통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야간 상황은 더욱 가관이었다. 노조원들은 인도를 점거해 술판을 벌이고 노상 취침에 방뇨까지 일삼았다. 쓰레기도 대량 투기했다. 이만저만한 민폐가 아니었다. 경찰은 이를 방관했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이 걱정을 덜려면 갈 길이 멀다. 당정이 내놓은 대책부터 실효성이 있는지 여간 의문스럽지 않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보완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지, 경찰 등에 기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의 새 해석과 적용을 요구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 당정이 보완 입법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거대야당은 또 어찌 설득할 것인가. 의욕만 앞세울 계제가 아니다. 정교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민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내세워 국가 사회를 뒤흔들기 일쑤인 전문 시위꾼들도 명심할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아우르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사실이다. 제아무리 헌법이 보장한다 할지라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1박 2일 노숙집회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결국엔 국민이 철퇴를 가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2014년 야간시위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란 취지의 집시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껏 보완 입법을 미뤄 사회 혼란을 키우고 입법 공백을 야기했다. 책임이 무겁다. 이번 노숙 집회 책임도 같이 질 수밖에 없다. 여야 공히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면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민폐 집회의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마감 후

이재영
금융부차장



영끌족의 뒤늦은 후회 “금융교육 절실”

“처음엔 모바일 앱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대출이 되니 순식간에 500만 원, 1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때만 해도 이렇게 빚이 늘어날 줄 몰랐어요. 별면 바로 갚아야지 했는데 어느새 대출만 80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빌리다 보니 이젠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 한도가 안 나온대요. 지금 생각하면 함부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조기 금융교육을 받았으면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후회가 돼요.”

우리 교육이나 언론,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재벌의 모습은 다소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누구나 부자가 되길 꿈꾸면서 오히려 재벌의 모습은 부정적으로 비추고 노동을 통한 꿈의 결실로 돈을 벌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현실도 그럴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발표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4년에는 18년간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36년간 급여를 모아야 장만할 수 있다. 사실상 평생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등을 통한 재테크로 목돈을 만들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오히려 이런 재테크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보다 돈을 잃었다는 사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재테크 시장에 뛰어들어 사람들이 다수가 해당 방면에 대한 정보나 공부 없이 남이 하나 따라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금융지식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 보니 단순히 돈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

교과 과정에 금융교육 강화해야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금융교육이 중요하다. 금융당국도 조기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3월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조기 금융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에 힘쓰겠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조기 금융교육의 추진 속도가 늦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은 이미 금융교육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했다. 미국은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평생 금융교육을 하고 있다. 영국은 금융교육 전담기구(MAS)를 설립하고 학교 교과에 금융교육을 포함시켜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제는 후회만 남기는 영끌족을 더는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 현명하게 공부하고 현실적으로 투자하는 영끌족을 만들도록 조기 금융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더 노력하길 바란다. lly0403@

마음상담소

결핍의 두 얼굴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서른 살이 다된 딸이 허구한 날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통에 집안에는 물건 천지카드값이 눈이 돌아갈 정도로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한다. 딸이 신용불량자이다 보니 뒷감당은 오로지 일흔이 넘는 아버지 몫이고, 돈벌이도 시원찮은 데다 큰딸 뒤처다 꺼리까지 하려니 지치고 힘에 부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방 안에서 쇼핑과 배달음식으로만 사는 딸을 보면 울화통이 터져 미칠 지경이라고 했다.

올해 첫 아이를 출산한 한 산모는 친정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울었다. 처음에는 친정엄마에게 가거나 오라고 하면 될 것을 무슨 문제될 일인가 의아했는데 설명을 듣고나니 그 심정이 이해가 됐다. 산모는 친정엄마가 수집병, 수집증 강박증이 있다고 했다. 친정엄마를 보러 가지니 물건을 버리지도 못하는 것도 모자라 밖에서 물건을 주워 집안에 싸놓는 통에 발 디딜 틈이 없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했다.

반대로 오시라고 하거나 자신의 집에

물건들을 주워올 것 같아 불안하고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어릴 적부터 멈추지 않는 친정엄마의 수집병 때문에 다투기도 수백수천 번, 몰래 갖다버리면 어느새 또다시 주워와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했다.

쇼핑중독인 딸과 수집증 강박증이 있는 친정엄마,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공통점이 있다. 한 사람은 쇼핑에, 또 한 사람은 물건수집에 집착하는 행위중독자라는 점이다. 이들을 상담해보면 외로움과 무로함, 만성적 궁핍 등 정서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결핍이다. 결핍은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만큼 부족함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함, 절박함을 갖게 하고 이는 또다시 부족함을 채우는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반면 딸이나 친정엄마처럼 누군가에게는 심리적 결핍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없다보니 부족함을 채우려는 대체행동을 하게 된다. 행위중독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심리적 결핍을 채우는 것이다. 그 방법은 사랑과 인정이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인정하라.

김현주 서울 서대문구보건소 사회복지사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Life Sensation

청정에 스마트를 더한 시기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는 삶

*휘센이 지향하는 삶에 대한 연출된 표현으로, 각 동작을 위해서는 리모컨과 ThinQ 앱 조치가 필요합니다

LG WHISEN | Objet Collection



자동 청정 관리
필터클린봇



온도/습도 자동 조절
스마트케어



자동 절전모드
레이더센서 외출절전



엘지아닷컴에서 확인하세요
LGE.COM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전자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중 8시간 사용 기준, 총 9시간(주말) 누적 사용 시 필터클린봇 청소 기능 작동*제어판 온도 설정 시 2시간으로 필터클린봇 청소 기능 작동 가능 *청소 성능: 차차 시공으로 내연자면 보류(가)를 필드에 부착 후 연차 제거 정도로 확인(15)되었으며, 클린봇이 필터를 청소(6)러도 6개월 주기별 먼지량을 비교하여 수평으로 필터 청소도 가능합니다 *냉방 성능: 무지 설정조건 - 실내기 강풍 자동온도/출입구 차를 주 냉방 테스트 결과 실내 27°C, 실외 35°C, 실외온도 F-028 A/D/A, 실외결과 - 평균외기 후면 40% 이상 적당 시 냉방 성능 20% 하락 *차차 시공 결과로 실제 현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인용의 최적 버전을 불러서 스마트케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케어가 냉방, 제습, 절전까지 3행으로 관리해 줍니다 *스마트케어 기능은 스마트케어 기능이 있는 모델에 한하여, 스마트케어 기능은 모델명상자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내의 레이더 센서를 통해 에어컨 동작 중 인체 부피 여부를 자동 감지하고 부재일 경우 설정에 따라 절전모드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OFF 하여 에너지를 절약해 줍니다 *2인용의 설정 버전을 불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차 시공 보류(가) 사용 불능사를 참고하십시오 *필터클린봇, 스마트케어, 레이더센서 외출절전 기능은 스마트를 제품의 기능 설명서, 필터클린봇과 레이더센서 외출절전 기능은 스마트의 사용자 모델에 포함